

▷ ▷ ▷ manifesto • Deliberative Democracy • Citizen jury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 2022 충청남도 도민배심원 회의 운영 결과 보고서

2022. 11.



Manifesto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C / O / N / T / E / N / T / S

<b>2022 충청남도 도민배심원 회의 결과 및 권고안 요약문</b> .....	<b>1</b>
1. 회의 개요 .....	3
2. 추진방향 및 진행과정 .....	5
가. 추진방향 .....	5
나. 진행과정 .....	6
3. 심의 안건에 대한 최종 결과 .....	8
가. 전체결과 .....	8
나. 공약 조정 승인요청에 대한 최종 투표 결과 .....	10
<b>제1장 들어가며</b> .....	<b>13</b>
1. 충청남도 도민배심원 운영 배경 .....	15
2. 도민배심원 운영 목적 및 방향 .....	17
3. 도민배심원 운영 개요 .....	19
가. 추진방향 .....	19
나. 도민배심원 회의 개요 .....	20
다. 심의 안건 선정 및 심의 방법 .....	20
<b>제2장 도민배심원 운영 절차</b> .....	<b>21</b>
1. 도민배심원 운영 기조 및 흐름 .....	23
2. 도민배심원 운영 지원 조직 .....	25
3. 도민배심원 모집 절차 .....	26
4. 도민배심원 예비회의 및 본회의 .....	33

**제3장 도민배심원 운영 결과 ..... 43**

- 1. 도민배심원 최종 심의 결과 ..... 45
  - 가. 전체결과 ..... 45
  - 나. 공약 조정 승인요청에 대한 최종 투표 결과 ..... 47
- 2. 분임별 안건 설명 및 질의응답 ..... 50
  - 가. 1분임(황금어장) ..... 51
  - 나. 2분임(홍주) ..... 63
  - 다. 3분임(충남어벤저스) ..... 76
  - 라. 4분임(공약 지켜보고 있다) ..... 91
  - 마. 5분임(처음이에요!) ..... 109
- 3. 분임별 토의 내용 및 결과 ..... 122
  - 가. 1분임(황금어장) ..... 122
  - 나. 2분임(홍주) ..... 130
  - 다. 3분임(충남어벤저스) ..... 136
  - 라. 4분임(공약 지켜보고 있다) ..... 144
  - 마. 5분임(처음이에요!) ..... 151

**제4장 도민배심원 활동 후기 ..... 161**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169**

**부록 ..... 173**

- 1. 1차 회의 교육자료 ..... 175
- 2. 3차 회의 교육자료 ..... 187





**충청남도 도민배심원  
회의결과 및  
권고안 요약문**





# 2022 충청남도 도민배심원 회의 결과 및 권고안 요약문

(2022년 11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주권재민 실현을 위해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공약실천계획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도민배심원단 구성을 제안함.

또한,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도민배심원단을 구성(직접민주주의 방식)하여 지역의 모든 구성원이 공약실천계획서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음.

충청남도에서 매니페스토본부에 의뢰하여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도민배심원단을 구성함. 1, 2차 예비회의를 통하여 배심원 교육, 공약사업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고, 3차 본회의에서 심의 안건에 대한 토의 및 투표를 거쳐 회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매니페스토본부는 배심원단 심의 결과 및 권고 의견을 충청남도에 전달하고, 2022년 12월 ~ 2023년 1월 내에 심의 결과 공표와 배심원단 권고 의견 수용여부 공시를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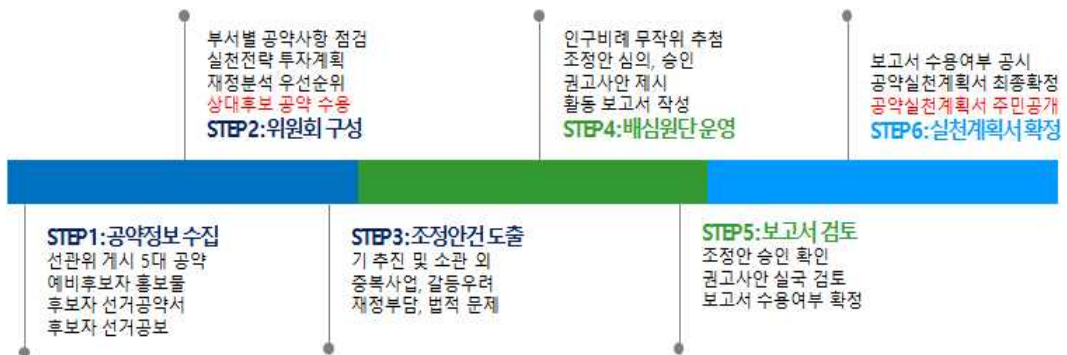
## 1. 회의 개요

- 회의명 :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2022 충청남도 도민배심원 회의
- 기간 : 2022년 9월 27일(화), 10월 18일(화), 11월 1일(화)
- 대상 : 충청남도 거주, 또는 재직 중인 만 18세 이상 주민
- 인원 : 도민배심원 50명
- 주최·주관 : 충청남도·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심의내용 : 민선8기 충청남도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18건)



■ 배심원 회의목적

- 제8회 동시지방선거는 디지털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치러졌던 ‘정초(定礎)선거’ 성격이 강했으나 지방선거 프레임이 국정 안정론과 정권 견제론으로 흘러가면서 상대적으로 정책검증이 소홀하였음.
- 이와 같은 이유로 당선자 인수위 및 위원회 활동이 선거공약을 기반으로 민선8기 추진 정책을 가다듬는 것을 넘어서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거나 선거공약 파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선거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입법과 재정이 필요한 정책들이 대부분이기에 실천계획의 마련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으나, 지역주민의 승인 없는 일방적 파기나 수정은 헌법정신과 대의민주주의, 정책선거 노력을 훼손하는 행위임.
- 선거에서의 공약은 고용계약서이며 공약을 중심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임. 지방자치의 요체인 주권재민 실현은 소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를 보장하는 것임.
- 따라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실국 및 위원회 활동을 통한 조정안 건 도출과 배심원단의 심의 및 승인, 공약실천계획서 주민공개 등의 공약실천계획서 확정 프로세스를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있음.





## 2. 추진방향 및 진행과정

### 가. 추진방향

-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으로 도민배심원단을 선발하여 주민의 대표성과 참여 기회 평등성을 확보함.
- 최종 선발을 거쳐 회의에 참여하는 도민배심원단은 주민 대표성을 가지고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에 대하여 평가하고 조정안건 심의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함.
- 비교적 단순하고 피상적인 의견수렴과 고정된 선호의 단순 취합이라는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통한 신중한 의사결정과 선호변경이 가능한 공론조사 방식의 토의 과정을 채택함.
- 도민배심원단의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 지자체 공약담당자는 심의 및 평가 안건(정책공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
- 운영관리에 있어 모든 절차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며 도민배심원단 스스로 운영하여 나가도록 유도함.
- 또한 원활한 토의 진행을 돕기 위해 분임별 촉진자(facilitator)도 함께 참여하고, 현장실무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시민사회 활동가로 구성함.
- 도민배심원단 논의 결과와 충청남도의 수용 여부는 일정기간 동안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함.

## 나. 진행과정



### ■ 도민배심원단 무작위 선발

- ARS를 통하여 1차 243명의 응답자 추출, 2차 전화면접을 거쳐 최종 50명 선발

### ■ 1차 예비회의 및 교육 (충남도청 대회의실) : 9월 27일(화) 13:30

- 위촉장 수여
- 매니페스토 운동과 도민배심원에 대한 교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시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 도민배심원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 참석자 마음열기 (아이스 브레이킹)
  - 도민배심원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 2차 예비회의 (충남도청 대회의실) : 10월 18일(화) 13:30

- 공약 안전 설명회 (주관부서 ⇔ 도민배심원)
  - 분임별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배심원 질의에 대해 답변
  - 설명 종료 후 도민배심원 자유 토의

■ 3차 본회의 (충남도청 대회의실) : 11월 1일(화) 13:30

- 분임토의
  - 분임별 소관 안전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공약실천계획 조정 걱정여부 심의 : 조정 관련 찬반 토의 및 분임별 투표
- 전체회의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공약실천계획 조정 걱정여부 심의 : 전체 도민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과반 찬성 시 승인)

### 3. 심의 안건에 대한 최종 결과

#### 가. 전체 결과

-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 18건(승인 17건, 불승인 1건)

분임	구분	토 의 안 건	결과
1분임 (황금어장)	심의	[2-9-1] 충남형 세대통합형 리브투게더 ※ 조정내역 : 공약 통합	승인
		[2-5-10] 한국판 골드코스트 조성 ※ 조정내역 : 공약 통합	승인
		[2-7-7] 충남형 '탄소 중립화 모델'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 조정내역 : 공약변경(세분화)	승인
		[2-7-8] 간척지의 첨단양식단지 조성 ※ 조정내역 : 공약 변경(세분화)	승인
2분임 (홍주)	심의	[2-9-2] 고령·은퇴 농업인 정년제 도입 ※ 조정내역 : 공약명 변경, 공약 통합	승인
		[3-11-3] 보육료 합리적 조정 ※ 조정내역 : 공약명 변경	승인
		[3-11-4] 워킹맘을 위한 초등돌봄체계 확립 ※ 조정내역 : 공약명 변경	승인



분임	구분	토 의 안 건	결과
3분임 (충남 어벤저스)	심의	[3-10-3]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강화 ※ 조정내역 : 공약 변경(세분화)	승인
		[3-10-4]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보험료 지원 ※ 조정내역 : 공약 변경(세분화)	승인
		[3-10-5] 충남도 확대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 조정내역 : 공약 변경(세분화)	승인
		[3-10-6]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운영 ※ 조정내역 : 공약 변경(세분화)	승인
4분임 (공약 지켜보고있다)	심의	[선거공보] 유네스코 지정 갯벌 국립공원 ※ 조정내역 : 공약 폐기	승인
		[3-10-10]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지원 ※ 조정내역 : 사업내용 변경	승인
		[4-16-1] e스포츠 메카 조성 ※ 조정내역 : 공약 통합	불승인
5분임 (처음이에요!)	심의	[1-2-3]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벨트 조성 ※ 조정내역 : 공약 통합	승인
		[역점] 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방안 ※ 조정내역 : 일반사업 전환(역점)	승인
		[역점] 칠갑산 관광자원 개발 및 콘텐츠 개발 ※ 조정내역 : 일반사업 전환(역점)	승인
		[역점] 소상공인·자영업 신용보증지원 ※ 조정내역 : 일반사업 전환	승인

### 나. 공약실천계획 조정 승인요청에 대한 최종 투표 결과

○ 총 18개 공약 조정 승인 요청에 대한 투표 결과 17개 안건이 배심원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고, 1개 안건이 불승인되었음.

투표 총 인원 : 24(명)

분임	연번	토 의 안 건	투표결과		
			승인	불승인	기권
1분임 (황금어장)	1	[2-9-1] 충남형 세대통합형 리브투게더 ※ 조정내역 : 공약 통합	18	4	2
	2	[2-5-10] 한국판 골드코스트 조성 ※ 조정내역 : 공약 통합	16	6	2
	3	[2-7-7] 충남형 '탄소 중립화 모델'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 조정내역 : 공약변경(세분화)	21	1	2
	4	[2-7-8] 간척지의 첨단양식단지 조성 ※ 조정내역 : 공약 변경(세분화)	18	4	2
2분임 (홍주)	5	[2-9-2] 고령·은퇴 농업인 정년제 도입 ※ 조정내역 : 공약명 변경, 공약 통합	14	10	0
	6	[3-11-3] 보육료 합리적 조정 ※ 조정내역 : 공약명 변경	20	4	0
	7	[3-11-4] 워킹맘을 위한 초등돌봄체계 확립 ※ 조정내역 : 공약명 변경	21	3	0



분임	연번	토 의 안 건	투표결과		
			승인	불승인	기권
3분임 (충남 어벤저스)	8	[3-10-3]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강화 ※ 조정내역 : 공약 변경(세분화)	22	2	0
	9	[3-10-4]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보험료 지원 ※ 조정내역 : 공약 변경(세분화)	22	2	0
	10	[3-10-5] 충남도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 조정내역 : 공약 변경(세분화)	22	2	0
	11	[3-10-6]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운영 ※ 조정내역 : 공약 변경(세분화)	23	1	0
4분임 (공약 지켜보고있다)	12	[선거공보] 유네스코 지정 갯벌 국립공원 ※ 조정내역 : 공약 폐기	18	4	2
	13	[3-10-10]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지원 ※ 조정내역 : 사업내용 변경	21	1	2
	14	[4-16-1] e스포츠 메카 조성 ※ 조정내역 : 공약 통합	7	17	0



분임	연번	토 의 안 건	투표결과		
			승인	불승인	기권
5분임 (처음이에요!)	15	[1-2-3]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벨트 조성 ※ 조정내역 : 공약 통합	19	5	0
	16	[역점] 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방안 ※ 조정내역 : 일반사업 전환(역점)	23	1	0
	17	[역점] 칠갑산 관광자원 개발 및 콘텐츠 개발 ※ 조정내역 : 일반사업 전환(역점)	22	1	1
	18	[역점] 소상공인·자영업 신용보증지원 ※ 조정내역 : 일반사업 전환	19	4	1



제1장

들어가며





## 제1장 들어가며

### 1. 충청남도 도민배심원 운영 배경

제8회 동시지방선거는 디지털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치러졌던 ‘정초(定礎) 선거’ 성격이 강했으나 지방선거 프레임이 국정 안정론과 정권 견제론으로 흘러가면서 상대적으로 정책검증이 소홀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당선자 인수위 및 위원회 활동이 선거공약을 기반으로 민선8기 추진 정책을 가다듬는 것을 넘어서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거나 선거공약 파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민선8기 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직접 주민들이 참여해 계획안을 평가하고 조정안을 승인하는 도민배심원 회의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과거 공약실천계획서 수립 주체가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 전문가라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요체인 주권재민 실현은 지역의 주인이며,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를 보장하는 것이라 점에서 도민배심원 회의가 제안된 것이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매니페스토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공약의 주인인 주민이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 조정안 승인 및 권고안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도민배심원회의 운영을 실시하게 되었다. 기존의 공모형식 주민 참여 모델은 대다수의 주민들에게는 참여의 기회가 한정되었고, 주민대표성 확보와 행정의 투명성, 민주적 절차 등을 모두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그러므로 주민 참여의 기회와 폭을 넓히고 심의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민배심원 구성에 있어서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선발은 탁월한 기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도민배심원 운영은 충청남도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교감하며 민선8기 공약실천의 기초와 방향 설정, 공약의 조정안 승인과 권고안 마련을 민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건강한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아가자 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정책공약과 그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하다.



## 2. 도민배심원 운영 목적 및 방향

민선5기부터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제안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본격적으로 공약실천계획서(공약실천매뉴얼)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실·국 및 소수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지역 주민 승인 없이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거나 선거공약 파기가 시도되는 등 헌법 정신과 대의민주주의, 정책선거 노력을 훼손하는 행위가 자행되었다.

따라서 선거공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자치행정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이 소홀히 다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상존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공약실천계획서 작성과 확정, 이행과정에서 주민 참여 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충청남도는 우선 전문가가 공약실천계획 초안을 작성한 후, 도민배심원 회의를 통하여 이에 대한 주민들의 승인 절차를 거치기로 하였다. 도민배심원 심의는 공약 조정안 승인 및 개선방안 마련을 내용으로 하였다. 주민들의 참여와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발된 도민배심원단의 학습 및 토의과정을 거쳐서 권고안을 도출하는 민주적 과정을 거쳤다.

우선, 도민배심원단 선발에 있어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 전체의 참여기회의 평등성, 그리고 주민 대표성 및 심의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청남도 거주 만 18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인구비례(지역·연령·성)에 의한 무작위로 도민배심원단을 선발했다. 또한 심의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체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주민, 그리고 정당의 당직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인구비례에 의하여 무작위로 선발된 충청남도 도민배심원단을 대상으로 권한과 임무에 대한 교육과 공약실천계획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 스스로 공약실천계획의 실효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토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주민과의 소통·공감을 통하여 신뢰행정을 발굴하고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과거의 낙수형 방식의 일방적 주민소통 방식을 개선하고 직접민주주의 원형인 아테네 민주주의 방식을 차용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참다운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도민배심원 운영 방향을 설계하였다.



### 3. 도민배심원 운영 개요

#### 가. 추진방향

- 첫째,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으로 도민배심원단을 선발해 주민대표성과 참여기회 평등성을 확보하였다.
- 둘째, 최종 선발을 거쳐 회의에 참여하는 도민배심원단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였다.
- 셋째, 전문가 중심의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을 개선해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워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토의과정을 통해 공약실천계획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넷째, 비교적 단순하고 피상적인 의견수렴과 고정된 선호의 단순 취합이라는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통한 신중한 의사결정과 선호변경이 가능한 공론조사 방식의 토의 과정을 거쳤다.
- 다섯째, 도민배심원의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심의 안건(정책공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관리에 있어서 모든 절차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며 도민배심원단이 스스로 운영하여 나가도록 유도하였다.
- 여섯째, 원활한 토의 진행을 위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활동가로 구성된 촉진자(facilitator)도 함께 참여하였고, 도민배심원단의 논의 결과와 충청남도 수용 여부는 일정기간 충청남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 나. 도민배심원 회의 개요

- 회의일자 : 2022년 9월 27일(화), 10월 18일(화), 11월 1일(화)
- 대상 : 충청남도 거주, 또는 재직 중인 만 18세 이상 주민
- 인원 : 도민배심원 50명
- 구성방법 :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주최·주관 : 충청남도·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심의범위 : 민선8기 충청남도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18건)

## 다. 심의 안건 선정 및 심의 방법

- 충청남도에서 선거공보물, 선관위 5대 공약 등 선거 공약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약을 조정 심의 안건으로 18건 제출하였다.
- 심의 절차는 국회 본회의 운영 방식을 차용하였다. 우선 5개 분임(소위원회)을 구성하여 분임별로 안건을 선정하였다. 공약실천계획 설명회, 분임 활동, 심층 분임토의를 통해 안건으로 채택된 공약들의 실천계획에 대한 평가, 심의 및 개선방안 마련이 이루어졌다. 분임토의에서 마련된 권고안들은 전체회의에서 도민배심원단 전원에게 보고한 후, 도민배심원 전체 동의를 거쳐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다.



제2장

**도민배심원 운영 절차**





## 제2장 도민배심원 운영 절차

### 1. 도민배심원단 운영 기조 및 흐름

#### ■ 숙의적 의사결정을 위한 배심원단 5대 주요사업

- 민주성과 공정성에 기반을 둔 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협력적 네트워크 다양화를 모색하며 아래로부터의 공감과 신뢰행정 기운을 조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배심원 선발	기초교육 심화교육	분임 활동	토의, 결정	결과 수용 주민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협약</li> <li>- ARS 모집</li> <li>- 전화 면접</li> <li>- 배심원 확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이해</li> <li>- 매니페스토 운동 및 배심원에 대한 이해</li> <li>- 공약에 대한 학습과 이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임별 평가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임 토의</li> <li>- 전체 회의</li> <li>- 권고안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고안 공시</li> <li>- 결과수용</li> <li>- 결과공시</li> </ul>

#### ■ 배심원단 진행과정의 흐름

<b>① 배심원단 무작위 선발</b>  지역, 성, 연령 고려 50명 선발  8월 11일 ~ 9월 1일	<b>② 1차 예비회의 · 교육</b>  배심원 운영 목적 및 역할 50명 중 35명 위촉  9월 27일(화)	<b>③ 2차 예비회의</b>  공약 담당자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 31명 참석  10월 18일(화)
↓		
<b>⑥ 권고안 수용여부 발표</b>  배심원단 권고안 수용여부  2022년 12월~2023년 1월 중	<b>⑤ 권고안 고시</b>  배심원단 권고안 검토  2022년 12월~2023년 1월 중	<b>④ 3차 본회의</b>  공약조정 심의, 권고안 제시 24명 참석  11월 1일(화)

- 공약설명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잡힌 정보 제공을 유도하고 토의 및 합의 과정에서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촉진자가 중심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였다.

■ 배심원단 운영 일정 및 주요내용

구분	일시 및 장소	주요내용
1차 예비 회의	9월 27일(화) 13:30 (충청남도청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촉장 수여</li> <li>○ 매니페스토 운동과 도민배심원에 대한 교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참여와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li> <li>-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li> <li>- 도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li> </ul> </li> <li>○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자 마음열기(아이스 브레이킹)</li> <li>- 도민배심원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li> </ul> </li> </ul>
2차 예비 회의	10월 18일(화) 13:30 (충청남도청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 안건 설명회 (주관부서 ⇔ 도민배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임별로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배심원 질의에 대해 답변</li> <li>- 설명 종료 후 도민배심원 자유 토의</li> </ul> </li> </ul>
분임 활동	2차 회의 이후 ~3차 회의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 부서 담당자와의 심층면담</li> <li>○ 현장조사 등 자율 활동</li> </ul>
본회의	11월 1일(화) 13:30 (충청남도청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임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li> <li>-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조정 관련 찬반 토의 및 분임별 투표</li> </ul> </li> <li>○ 전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li> <li>-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전체 도민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과반 찬성 시 승인)</li> </ul> </li> </ul>



## 2. 도민배심원 운영 지원 조직

### ■ 배심원단 분임별 촉진자

- 분임별 촉진자는 배심원 회의 기획 및 운영을 위하여 구성된 활동가 조직이다. 촉진자는 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의 경험이 있으며 지역 활동에 대한 현장실무 경험이 있는 활동가 및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 촉진자는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으며, 배심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원활한 토의를 위한 진행자 및 공약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한 조력자 역할을 담당한다.
- 촉진자 구성
  - 김건수 곰솔나무작은도서관 원장
  - 홍승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기획팀장
  - 곽병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청년 활동가
  - 이지선 서비스 디자이너
  - 최인석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청년 활동가

### 3. 도민배심원 모집 절차

#### ■ 1차 모집 (ARS를 통한 무작위 추출)

- 만 18세 이상 충청남도 거주,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유선전화 ARS를 통해 243명의 1차 배심원 모집
- 모집 및 선정방법
  - ARS를 통해 성, 나이, 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 참여 희망자 조사

구 분	성	나이	지역	1차 선발
고려 사항	성별 동수	20,30,40,50, 60대 이상	지역별 인구 비례로 선발	참여의향을 밝힌 배심원 선발

- ARS 모집을 위한 안내 내용

안녕하세요? 충청남도는 매니페스토본부와 함께 충청남도지사 공약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배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도민배심원으로 지원하시면 9월 6일, 9월 27일, 10월 18일 총 3회에 걸쳐 충청남도지사 공약점검 회의에 참석하게 되며, 참석하신 분에게는 소정의 회의비를 드립니다. 도민배심원에 참여하실 의사가 없으시면 전화를 끊어주세요. 그럼 도민배심원 등록을 위해 몇 가지 여쭙어보겠습니다.

[지역]

01) 선생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 천안시 이시면 1번
2. 아산시, 당진시 이시면 2번
3.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이시면 3번
4.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이시면 4번
5. 충남도민이 아니시면 5번 → 설문종료(분기종료)

[연령]

02) 선생님의 연령대가

1. 만 18세 미만이면 1번 → 설문종료(분기종료)
2. 만 18세 이상 20대면 2번
3. 30대면 3번
4. 40대면 4번



- 5. 50대면 5번
- 6. 60대 이상이면 6번을 눌러주십시오.

[성별]

- 03) 선생님의 성별이 남성이라면 1번, 여성이라면 2번을 눌러주세요.
- 1. 남성
  - 2. 여성

[휴대전화번호]

- 04) 자세한 일정 및 행사 안내를 위해 선생님께 직접 전화를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휴대전화 번호와 우물정자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종료 멘트] **[조사제외대상]</p>	<p>[90 - 맺음말] * 도민배심원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ARS는, 최종 선발 전화가 아니므로, 최종 확정 여부는 직접 전화 드리고 안내하겠습니다. 조기 선발 완료시에는 전화를 드리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p> <p>[91 - 분기종료] * *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p>
--------------------------------	--

※ 당초 회의 일정을 9월 6일, 9월 27일, 10월 18일로 안내하고 배심원을 선발하였으나, 태풍으로 인해 회의 일정을 9월 27일, 10월 18일, 11월 1일로 조정하고 안내하였음.

■ 2차 모집 (전화 면접)

- ARS를 통해 배심원단 참여 의사를 밝힌 주민 243명을 대상으로 하여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전화 면접을 거쳐 최종 배심원단 50명 선발
- 선발은 무작위로 진행하되 인구비례에 의해 이해도와 참여도가 높은 주민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였음
- 단체장의 직계 가족과 정당의 주요 당직자, (현)공무원,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는 제외하였음.



○ 전화면접 주요 내용

- 안녕하세요? 며칠 전 ARS를 통해 충남도지사 공약실천계획 점검을 위한 도민배심원 회의 참여를 희망하셨는데요. 도민배심원 최종 선발을 위해 전화 드렸습니다. 일정을 안내해 드려도 될까요?
- 도민배심원 회의는 총 3회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첫 회의인 1차 회의는 9월 6일 화요일 / 2차 회의는 9월 27일 화요일 / 3차 회의는 10월 18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 따라, 비대면 회의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 3차 회의 모두 장소는 충청남도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 ※ 1회 회의 당 소요시간은 약 3-4시간
  - ※ 1차 또는 2차 회의에 불참한 경우 3차 회의 참여 불가
- 선생님 3회차 모두 참석가능하신가요? (3회차 모두 참석가능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안 하실 경우, 재차 여쭙보고 정중히 거절)
- 마지막 확인 질문
  - 충남도지사와 친인척관계에 있으신가요?
  - 공공기관의 공무원, 또는 정당 주요 당직자, 기자와 같은 오피니언 리더 직업으로서 현재 근무하고 계신가요? (前 선출직 공직자 및 후보자 출신도 제외. 전 지방의원/전 국회의원/전 지자체단체장/전 대통령 등등)
  - 회의장에서 확인이 될 경우, 도민배심원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자인 경우) 지역사회에 오피니언 리더는 다른 참여기회도 많고. 본 회의는 일반 주민 참여를 우선하고 있음. 참관 및 취재는 가능할 것 같음.
  - '그렇다'고 대답한 경우에는 회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공손하게 도민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을 알림.
  - 네, 선생님은 충남도지사 공약실천계획 점검을 위한 도민배심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재차 아래 사항 확인
  - 위촉장 수여식과 명찰 제작으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확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함 / 지역 / 연령대 / 성별 / 문자수신 연락처 / 주소 ※ 성함, 연령대, 지역 정확히 확인해야 함
- 문자로 일정 및 장소를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자 확인이 가능하신지요?
-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으나, 실내에서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참석하실 때 마스크착용을 꼭 부탁드립니다.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이나, 회의 당일 발열 혹은 호흡기 증상등이 있다면 회의 참석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본회의는 재선발이 불가능한 회의입니다. 미참석시, 그만큼 다른 분들의 기회까지 사라지게 됩니다. 충청남도민의 대표로 회의에 참석하시는 만큼, 세 번의 회의에 꼭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 도민배심원 선발 명단

연번	이름	성별	연령대	지역	비고
1	강○자	여성	60대	천안시	
2	강○환	남성	30대	천안시	
3	구○회	남성	60대	공주시	
4	권○용	남성	50대	서산시	
5	김○태	남성	60대	논산시	
6	김○희	여성	50대	서산시	
7	김○환	남성	30대	보령시	
8	김○학	남성	70대	부여군	
9	김○정	남성	50대	서천군	
10	김○순	여성	60대	천안시	
11	김○숙	여성	60대	당진시	
12	나○채	남성	20대	아산시	
13	남○흥	남성	50대	천안시	
14	류○범	남성	50대	아산시	
15	류○나	여성	40대	천안시	
16	문○식	남성	50대	서산시	

연번	이름	성별	연령대	지역	비고
17	박○비	여성	20대	홍성군	
18	박○희	여성	60대	당진시	
19	박○식	남성	50대	태안군	
20	배○숙	여성	60대	천안시	
21	서○일	남성	40대	천안시	
22	서○우	남성	80대	논산시	
23	송○연	여성	50대	천안시	
24	신○민	남성	30대	청양군	
25	신○호	남성	30대	아산시	
26	안○연	여성	50대	서산시	
27	양○순	여성	30대	천안시	
28	오○환	남성	40대	부여군	
29	우○균	남성	40대	천안시	
30	유○남	남성	50대	서산시	
31	유○이	여성	60대	계룡시	
32	유○용	남성	40대	서산시	
33	이○화	여성	50대	서산시	
34	이○우	남성	40대	예산군	
35	이○지	남성	50대	계룡시	
36	이○열	여성	60대	천안시	
37	이○임	여성	50대	서산시	
38	이○옥	여성	60대	서산시	
39	이○주	남성	40대	당진시	
40	이○우	남성	70대	예산군	
41	인○삼	남성	50대	예산군	



연번	이름	성별	연령대	지역	비고
42	임○호	남성	60대	논산시	
43	전○규	남성	50대	천안시	
44	정○정	여성	20대	천안시	
45	정○아	여성	30대	천안시	
46	정○석	남성	80대	홍성군	
47	최○자	여성	60대	천안시	
48	최○운	여성	60대	금산군	
49	홍○규	남성	50대	천안시	
50	황○희	여성	60대	보령시	

○ 연령별 선발된 배심원 수

연령	선발인원
20대	3
30대	6
40대	7
50대	16
60대 이상	18
계	50

○ 성별 선발된 배심원 수

성별	선발인원
남	29
여	21
계	50

○ 지역별 선발된 배심원 수

지역	선발인원
천안시	16
아산시	3
당진시	3
보령시	2
서산시	9
서천군	1
홍성군	2
예산군	3
태안군	1
공주시	1
논산시	3
계룡시	2
금산군	1
부여군	2
청양군	1
계	50



## 4. 도민배심원 예비회의 및 본회의

### ■ 1차 예비회의 및 배심원단 최종 확정

- 일시 및 장소 : 9월 27일(화) 13:30 / 충청남도청 대회의실
- 배심원단 참석자 수 : 35명
- 주요내용 : 배심원단 교육 및 분임 구성
  - 위촉장 수여
  - 매니페스토 운동과 도민배심원에 대한 교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주민참여와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 도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 참석자 마음열기 (아이스 브레이킹)
    - 도민배심원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분 임 명				
황금어장 (1분임)	홍주 (2분임)	충남어벤져스 (3분임)	공약 지켜보고 있다 (4분임)	처음이에요! (5분임)

### ■ 2차 예비회의

- 일시 및 장소 : 10월 18일(화) 13:30 / 충청남도청 대회의실
- 배심원 참석자 수 : 31명
- 내용 : 공약 안건 설명회 (주관부서 ⇄ 도민배심원)
  - 분임별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도민배심원 질의에 답변
  - 설명 종료 후 도민배심원 자유 토의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3:4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회 및 진행 순서 안내</li> <li>▶ 공약실천계획 총괄 설명</li> </ul>	충청남도
13:40~13:55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임별 시간 (2차·3차 회의 진행 안내 등)</li> </ul>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13:55~17:05 (1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임별 공약 설명 및 질의응답 (주관부서 ⇒ 도민배심원)</li> <li>- 분임별로 공약사업담당자가 직접 설명, 도민배심원 질의에 대한 답변</li> </ul>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 공약사업 추진부서
13:55~14:40 (45´)	- 안건 1 설명 및 질의응답	
14:40~15:25 (45´)	- 안건 2 설명 및 질의응답	
15:25~15:35 (10´)	- 휴식	
15:35~16:20 (45´)	- 안건 3 설명 및 질의응답	
16:20~17:05 (45´)	- 안건 4 설명 및 질의응답	
17:05~17:1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임활동 계획 세우기, 소감나누기</li> </ul>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17:10~17:15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일정 안내 및 폐회</li> </ul>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 ■ 분임별 심의 안건 내용

### ○ 1분임 (황금어장)



- 촉진자 : 김건수 곶술나무작은도서관 원장

구분	공 약 명	비 고
조정 안건	[2-9-1] 충남형 세대통합형 리브투게더	농촌활력과
조정 안건	[2-5-10] 한국판 골드코스트 조성	해양정책과
조정 안건	[2-7-7] 충남형 '탄소 중립화 모델'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어촌산업과
조정 안건	[2-7-8] 간척지의 첨단양식단지 조성	수산자원과







○ 3분임 (충남어벤저스)



- 촉진자 : 광병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청년 활동가

구분	공약명	비고
조정 안건	[3-10-3]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강화	장애인복지과
조정 안건	[3-10-4]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보험료 지원	장애인복지과
조정 안건	[3-10-5] 충남도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장애인복지과
조정 안건	[3-10-6]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운영	장애인복지과

○ 4분임 (공약 지켜보고 있다)



• 촉진자 : 이지선 서비스 디자이너

구분	공 약 명	비 고
조정 안건	[선고공보] 유네스코 지정 갯벌 국립공원	기후환경정책과
조정 안건	[3-10-10]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지원	여성가족정책관
조정 안건	[4-16-1] e스포츠 메카 조성	문화정책과



○ 5분임 (처음이에요!)



- 촉진자 : 최인석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청년 활동가

구분	공약명	비고
조정 안건	[1-2-3]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벨트 조성 (통합)	에너지과
조정 안건	[역점] 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방안 (전환)	에너지과
조정 안건	[역점] 칠갑산 관광자원 개발 및 콘텐츠 개발 (전환)	도립공원과
조정 안건	[역점] 소상공인·자영업 신용보증지원 (전환)	기업지원과

### ■ 3차 본회의

- 일시 및 장소 : 11월 1일(화) 13:30 / 충청남도청 대회의실
- 배심원 참석자 수 : 24명
- 내용 : 분임회의 및 전체회의
  - 분임토의
    -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조정 관련 찬반 토의 및 분임별 투표
  - 전체회의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전체 도민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과반 찬성 시 승인)
- 분임 토의는 아래 표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배심원단의 의견을 빠짐 없이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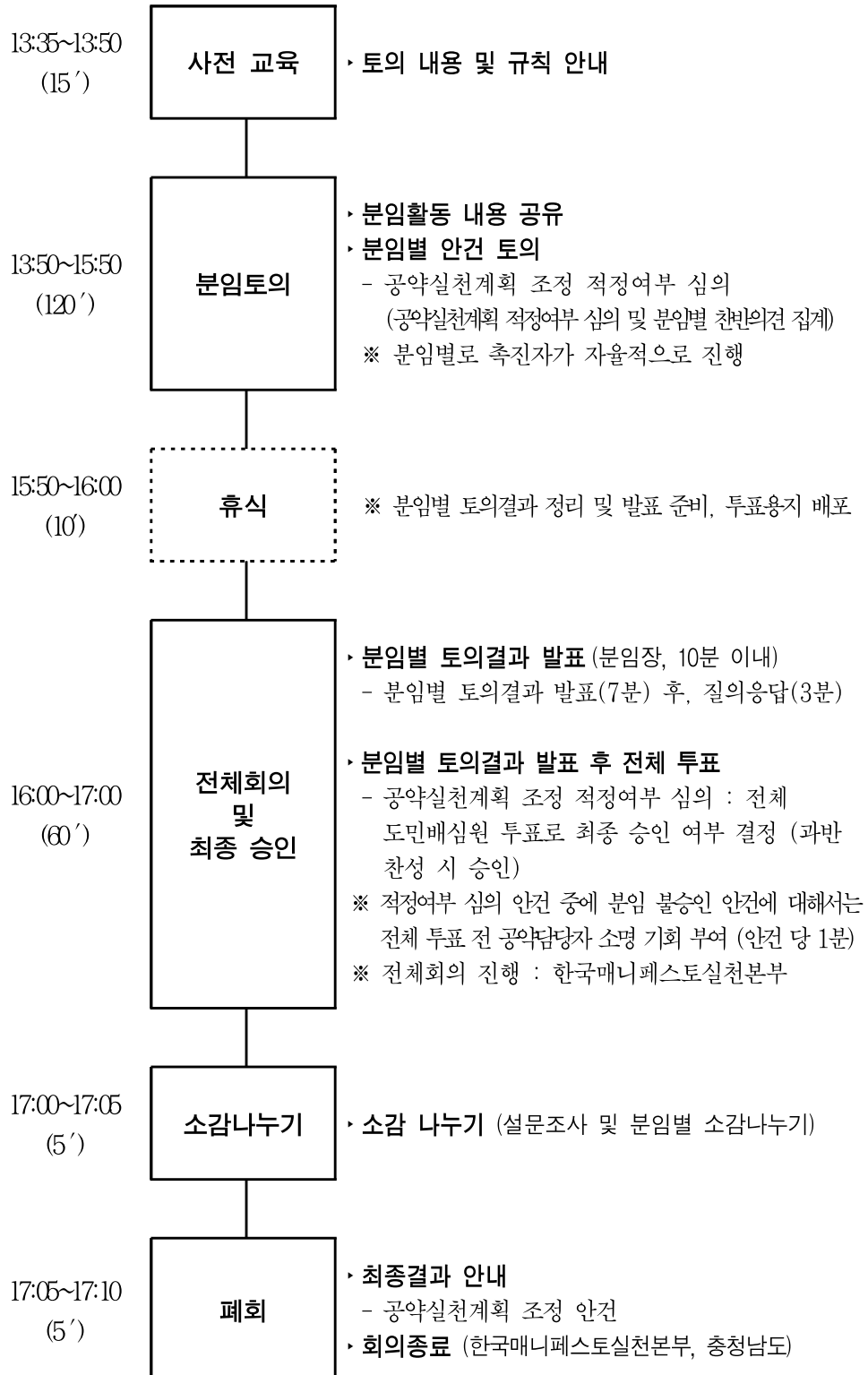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에 대한 찬반토의>

1. 안건 및 2차 회의 질의응답 내용 설명
2. 순차적으로 배심원단의 1차 찬반입장 제시 (1차 조사)
3. 순차적으로 찬반의견에 대한 사유 제시
4. 찬반의견에 대한 토의
5. 2차 찬반 투표 진행 (2차 조사)
6. 토의결과 정리

-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는 안건별 찬반 결과 및 토의 내용을 분임토의에서 정리한 후 전체회의에서 배심원단 전원 투표를 거쳐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결정함.
- 전체회의에서 분임별 회의 결과에 대한 배심원들의 개별 질문이 있을 경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개별 위원들이 개진한 의견들도 권고안의 기타의견으로 첨부함.



○ 본회의 진행 방식은 아래 표와 같음







제3장

**도민배심원 운영 결과**







## 제3장 도민배심원 운영 결과

### 1. 도민배심원 최종 심의 결과

#### 가. 전체 결과

-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 18건(승인 17건, 불승인 1건)

분임	구분	토 의 안 건	결과
1분임 (황금어장)	심의	[2-9-1] 충남형 세대통합형 리브투게더 ※ 조정내역 : 공약 통합	승인
		[2-5-10] 한국판 골드코스트 조성 ※ 조정내역 : 공약 통합	승인
		[2-7-7] 충남형 '탄소 중립화 모델'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 조정내역 : 공약변경(세분화)	승인
		[2-7-8] 간척지의 첨단양식단지 조성 ※ 조정내역 : 공약 변경(세분화)	승인
2분임 (홍주)	심의	[2-9-2] 고령·은퇴 농업인 정년제 도입 ※ 조정내역 : 공약명 변경, 공약 통합	승인
		[3-11-3] 보육료 합리적 조정 ※ 조정내역 : 공약명 변경	승인
		[3-11-4] 워킹맘을 위한 초등돌봄체계 확립 ※ 조정내역 : 공약명 변경	승인

분임	구분	토 의 안 건	결과
3분임 (충남 어벤저스)	심의	[3-10-3]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강화 ※ 조정내역 : 공약 변경(세분화)	승인
		[3-10-4]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보험료 지원 ※ 조정내역 : 공약 변경(세분화)	승인
		[3-10-5] 충남도 확대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 조정내역 : 공약 변경(세분화)	승인
		[3-10-6]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운영 ※ 조정내역 : 공약 변경(세분화)	승인
4분임 (공약 지켜보고있다)	심의	[선거공보] 유네스코 지정 갯벌 국립공원 ※ 조정내역 : 공약 폐기	승인
		[3-10-10]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지원 ※ 조정내역 : 사업내용 변경	승인
		[4-16-1] e스포츠 메카 조성 ※ 조정내역 : 공약 통합	불승인
5분임 (처음이에요!)	심의	[1-2-3]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벨트 조성 ※ 조정내역 : 공약 통합	승인
		[역점] 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방안 ※ 조정내역 : 일반사업 전환(역점)	승인
		[역점] 칠갑산 관광자원 개발 및 콘텐츠 개발 ※ 조정내역 : 일반사업 전환(역점)	승인
		[역점] 소상공인·자영업 신용보증지원 ※ 조정내역 : 일반사업 전환	승인



## 나. 공약실천계획 조정 승인요청에 대한 최종 투표 결과

- 총 18개 공약 조정 승인 요청에 대한 투표 결과 17개 안건이 배심원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고, 1개 안건이 불승인되었음.

투표 총 인원 : 24(명)

분임	연번	토 의 안 건	투표결과		
			승인	불승인	기권
1분임 (황금어장)	1	[2-9-1] 충남형 세대통합형 리브투게더 ※ 조정내역 : 공약 통합	18	4	2
	2	[2-5-10] 한국판 골드코스트 조성 ※ 조정내역 : 공약 통합	16	6	2
	3	[2-7-7] 충남형 '탄소 중립화 모델'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 조정내역 : 공약변경(세분화)	21	1	2
	4	[2-7-8] 간척지의 첨단양식단지 조성 ※ 조정내역 : 공약 변경(세분화)	18	4	2
2분임 (홍주)	5	[2-9-2] 고령·은퇴 농업인 정년제 도입 ※ 조정내역 : 공약명 변경, 공약 통합	14	10	0
	6	[3-11-3] 보육료 합리적 조정 ※ 조정내역 : 공약명 변경	20	4	0
	7	[3-11-4] 워킹맘을 위한 초등돌봄체계 확립 ※ 조정내역 : 공약명 변경	21	3	0

분임	연번	토 의 안 건	투표결과		
			승인	불승인	기권
3분임 (충남 어벤저스)	8	[3-10-3]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강화 ※ 조정내역 : 공약 변경(세분화)	22	2	0
	9	[3-10-4]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보험료 지원 ※ 조정내역 : 공약 변경(세분화)	22	2	0
	10	[3-10-5] 충남도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 조정내역 : 공약 변경(세분화)	22	2	0
	11	[3-10-6]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운영 ※ 조정내역 : 공약 변경(세분화)	23	1	0
4분임 (공약 지켜보고있다)	12	[선거공보] 유네스코 지정 갯벌 국립공원 ※ 조정내역 : 공약 폐기	18	4	2
	13	[3-10-10]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지원 ※ 조정내역 : 사업내용 변경	21	1	2
	14	[4-16-1] e스포츠 메카 조성 ※ 조정내역 : 공약 통합	7	17	0



분임	연번	토 의 안 건	투표결과		
			승인	불승인	기권
5분임 (처음이에요!)	15	[1-2-3]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벨트 조성 ※ 조정내역 : 공약 통합	19	5	0
	16	[역점] 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방안 ※ 조정내역 : 일반사업 전환(역점)	23	1	0
	17	[역점] 칠갑산 관광자원 개발 및 콘텐츠 개발 ※ 조정내역 : 일반사업 전환(역점)	22	1	1
	18	[역점] 소상공인·자영업 신용보증지원 ※ 조정내역 : 일반사업 전환	19	4	1

## 2. 분임별 안건 설명 및 질의응답

2차 예비회의에서 이루어진 공약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에 기초하여, 3차 분임회의에서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걱정여부 투표와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평가 토의 및 권고안 마련이 이루어졌다.

2차 예비회의는 배심원단 31명, 촉진자 5명, 공약담당부서 공무원 등을 포함해 60여명이 참석했다. 2차 회의에서는 분임별로 안건 담당자가 배석한 가운데 안건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으며, 배심원단들의 질의에 담당공무원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2차 회의 후 배심원단은 분임 토론 등 자율활동을 거쳐 3차 회의를 준비하였다.

3차 본회의는 공약실천계획 조정 걱정여부 심의를 주요 내용으로 분임 토의 및 전체회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공약실천계획 조정 걱정여부 심의는 안건별 찬반 결과 및 토의 내용을 분임 토의에서 정리한 후 전체회의에서 배심원단 전원 투표를 거쳐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결정하였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3차 본회의 진행에 앞서 토의에 임하는 배심원단의 자세와 역할, 심의 과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최종 결과에 대한 후속작업 등을 전달하였다.



## 가. 1분임 (황금어장)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2-9-1] 충남형 세대통합형 리브투게더

###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 통합

변경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형 농촌공간계획 수립 TF팀 구성 운영</li> </ul>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형 세대통합형 리브투게더 추진(농촌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 농촌형 리브투게더 사업」 내 전문가 자문·심의 기능으로 통합 추진</li> </ul> </li> </ul>

- 당초 공약 취지

- 다양한 농촌공간 재구성 사업의 효율적 의사결정 및 추진 로드맵 수립 필요
  -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소멸에 대비한 충남형 농촌공간계획 수립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활기찬 농촌의 선도모델 마련
- 행정, 연구·유관기관 및 농촌분야 전문가 집단 구성 운영
  - 충남형 농촌공간계획 수립 추진 및 자문 수행

- 조정 요청 사유

- 「농촌공간계획법」 제정 추진중(농식품부, '22.12월 예정)
  - 광역지자체에 법정위원회(심의기구)를 의무적 구성토록 되어 있어 기능 중복 등 공약으로 부적절
  - 「충남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 전문가 자문·심의 기능으로 통합 운영



## ■ 질의응답

- 배심원 : 국토이용계획법의 농촌을 도시로 바꾸겠다는 건가요?
- 담당자 :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계획법을 떠나서 살수는 없습니다. 계획법에 따라 세분화된(농촌, 도시, 어촌 등 지번으로 규정 - 세분화 주거, 상업, 농지 등) 농촌공간계획법에 맞게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규제인가요? 몰아주기인가요? 차별이 안되면 좋겠습니다.
- 담당자 : 법에 따라 누구에게는 규제가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을 것 같기에 특정인을 위해서만 법을 적용하기가 힘들지만, 최대한 피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보다는 좋은 해결방법을 찾으려 하겠습니다.
- 배심원 : 농촌지역 대상이기에 어르신 들이 주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도 살피주시면 고맙겠습니다.(스마트팜)
- 담당자 : 9개 지역이 소멸지역이 있구요, 5개 남은 지역도 소멸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배심원 : 방치되어 있는 농촌시설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공동생활거주지)
- 담당자 : 굉장히 좋은 말씀이구요, 시골의 전원주택단지에는 민간이 개인적 분양도 있지만 도에서는 영리가 아닌 임대로 청년, 은퇴농(은퇴 후 일정기간 살 수 있도록) 등을 위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15개 지자체 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를 해드릴 수 있지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복합 커뮤니티 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소멸시군이 어떻습니까?
- 담당자 : 소멸시군에 포함되지 않은 곳도 1군데는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실버특화 공동주택(LH) 행복주택 등 입주신청을 계획만큼 세입자를 못구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조건을 하향도 하구요.
- 담당자 : 신규조성형 마을, 마을재편형 마을(예-서천 임대7~8만원 마을주택 조성), 한계마을(주거자가 없어서 소멸직전의 마을)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임대, 도로, 공원, 농촌이기에 텃밭도 조성해서 마을을 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어르신은 고향을 떠나려 하지 않으시고, 청년들은 공동플랫폼으로 함께 쓰는 있는데 이런 방식을 어떠신가요?
- 담당자 : 공동생활플랫폼은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인해 잠깐 성행했다가 지금은 안하고 있어서 우리는 공동생활홈(1층 어르신, 2층 일반, 3층 청년 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서천)
- 배심원 : 노인요양시설을 민간이 아닌 공용으로 운영하면 어떨까요?
- 담당자 : 이 부분도 서천이 좋은 예인데요, 요양원, 요양병원, 장애인복지관, 아파트형 주거시설, 노인주거단지를 올 8월부터 입주 시작했습니다.(시장, 군수님께서 하시기 나름입니다.) 시장, 군수와 마을주민의 서로간의 공모화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발전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제안을 하면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 배심원 : 도비와 시비가 골고루 되나요?
- 담당자 : 시비가 많이 들어가면 공모를 안하니 도비를 70%로 하고 있습니다.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2-5-10] 한국판 골드코스트 조성**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 통합

변경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령~태안 섬 크루즈 운영</li> </ul>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판 골드코스트 조성</li> </ul>

- 당초 공약 취지

- (여건 및 필요성)
  - 서해고속도로, 수도권 전철노선 확대, 중부 내륙철도 개통 등 교통 인프라 확충
  - 관광객 증가 추세, 본격적인 서해안 관광시대를 위한 콘텐츠 개발 필요
- (사업내용)
  - 서해안 선셋 씨푸드 크루즈선 유치
  - 석양과 서해 음식을 즐기는 시푸드 관광프로그램 개발

- 조정 요청 사유

- 한국판 골드코스트 조성은 충남 서해안만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해양 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서해안에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사업
  - 해양레저·생태·치유·크루즈관광을 융복합하는 해양 네트워크 구축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사항으로 공약 통합 필요



## ■ 질의응답

- 배심원 : 우리 충남이 딱히 관광산업이 없어서 괜찮을 듯 싶은데, 잘 운영이 되면 좋겠지만 막대한 예산(2조 가까이)이 들어가는데 흥행이나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할지 걱정입니다.
- 담당자 : 민간이 주로 비용을 부담하고 지자체는 공공부분만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도예산을 최소화 하는 범위 안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산도 쪽 5개 섬을 중심으로 대명리조트가 내년 착공 예정이고, 글로벌 해양레저도시(레포츠센터, 마리나항, 섬마다 테마구성)는 9월14일 해수부와 업무협약, 주민과의 상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관광수요 예측이나 자료 등은 충분한가요?
- 담당자 : 5개 부분의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구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보령해저터널이 충남의 상징적인 시설이고 원산도도 다녀왔는데 주변 관광지와 잘 어우러지면 좋겠습니다.(테마, 교통, 울릉도, 제주도의 예)
- 담당자 : 원산도 등 섬마다 가족, 영성, 레저, 예술 등의 테마를 뒤서 운영의 묘를 최대화하고 있습니다. 골드코스트를 다 잘 이어서 운영을 잘 해보려고 합니다.
- 배심원 : 접근성, 편의시설이 보충되어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담당자 : 서산민항, 고속도로도 서산~세종 준비중이고, 제2서해대교도 타당성 조사중입니다. 당진, 서산의 국도 연장 및 교량건설 사업도 반영하기로 되어있습니다.
- 배심원 : 자연재해 등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나요?(피난, 구조 등)
- 담당자 :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구요, 안전을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심원 : 5개 분야가 새로이 시작된 건가요?

- 담당자 : 원래 있던 사업을 잘 연계해서 골드코스트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총 사업기간이 8년인데 기간별로 준비를 잘 해서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 담당자 : 좋은 말씀이구요,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변경(세분화)

변경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산업진흥구역 지정, 서해안 수산어업 지원</li> </ul>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7-6)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li> <li>• (2-7-7) 충남형 '탄소 중립화 모델'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li> <li>• (2-7-8) 간척지의 첨단양식단지 조성</li> </ul>

- 당초 공약 취지

- 어업가구의 2020년 평균 부채는 64백만원으로 어가소득 53백만원보다 11백만원이 높으며, 농가부채 38백만원 보다 26백만원 높은 수준
  - 원인은 불안정한 판로, 복잡한 유통구조, 영세한 인프라를 기반으로한 불안정한 생산 등으로 타 산업보다 낙후된 수산업의 지원이 절실
- 수산업 어촌과 4차산업을 결합시켜 돈 되는 어업 육성
  - 수산식품산업의 미래성장을 통한 수출·R&D·창업 등 기능이 결합된 수산식품산업 종합 인프라 구축으로 어촌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필요

- 조정 요청 사유

- (세분화) “서해안 수산어업 지원”의 입체적 지원을 위해 ① 수산물 생산 분야(간척지 첨단양식단지 조성)와 ② 식품산업 육성 분야(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로 세분화 추진
- (정부정책) 정부의 글로벌 탈탄소 전환에 대응한 국정목표 ‘탄소중립 실현’에 우리도 수산식품산업의 미래성장을 위해 탄소 중립형 산업으로 전환 필요

※ 새정부 국정목표 4-⑯ - 탄소중립 실현, 국정과제 23 -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

• (균형발전) 수출·R&D·창업·광역공공급식 기능이 결합된 선도적 중부권 종합 씨푸드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도모

➡ 우리도 전국 3번째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대상지 선정\*을 통해 정부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한 수출전략형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역 고용 창출 확대

\* 他 시도 : ('19.) 전남 목포(1,089억원, 예타면제-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2.) 부산(813억원, '21.11. 예타통과)

## ■ 질의응답

○ 배심원 : 1가지도 어려운데 3가지로 늘린다면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너무 사업을 키우는 건 아닌지요?

○ 담당자 : 실무자 입장에서는 1가지만 하는게 쉽겠지만, 서해수산의 발전을 위해서 3가지를 함께 해야 하기에 공약 변경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배심원 : LNG단지에서 액체를 기체로 기화시킬 때 냉열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건가요?

○ 담당자 : LNG단지에서 액체를 기체로 기화시키면 열이 나오는데 이 냉열을 냉동창고의 냉각기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배심원 : 단지구역은 다 준비가 되어있나요?

○ 담당자 : 박근혜정부부터 시작했는데, 거의 20년만에 시작을 했습니다. 기재부 땅이었는데 우리 것(당진시)으로 만들어 낸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지역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배심원 : 어업가구가 부채가 큰데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담당자 :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심원 : 김 제조공정에 대해 우리가 제안할 수 있나요?
- 담당자 : 물론 가능하구요, 최대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심원 : 저장시설에 냉열이 어디에 쓰이나요?
- 담당자 : 공장, 냉동창고, 가공과정, 상품보관 등에 차가운 열이 필요합  
니다. 고용창출에도 영향이 있으니 최대한 가공공장 .회사가 운영을 편  
리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2-7-8] 간척지의 첨단양식단지 조성**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 변경(세분화)

변경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산업진흥구역 지정, 서해안 수산어업 지원</li> </ul>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7-6)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li> <li>• (2-7-7) 충남형 ‘탄소 중립화 모델’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li> <li>• (2-7-8) 간척지의 첨단양식단지 조성</li> </ul>

○ 당초 공약 취지

- 어업가구의 2020년 평균 부채는 64백만원으로 어가소득 53백만원보다 11만원이 높으며, 농가부채 38백만원 보다 26백만원 높은 수준
  - 원인은 불안정한 판로, 복잡한 유통구조, 영세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불안정한 생산 등으로 타 산업보다 낙후된 수산업의 지원이 절실
- 수산업 어촌과 4차산업을 결합시켜 돈 되는 어업 육성
  - 수산식품산업의 미래성장을 통한 수출·R&D·창업 등 기능이 결합된 수산식품산업 종합 인프라 구축으로 어촌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필요

○ 조정 요청 사유

- (세분화) “서해안 수산어업 지원”의 입체적 지원을 위해 ① 수산물 생산 분야(간척지 첨단양식단지 조성)와 ② 식품산업 육성 분야(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로 세분화 추진
- (정부정책) IC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친환경 스마트 양식으로 전환 필요
  - \* 새정부 국정과제 73 -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 해양수산 스마트화 추진전략 2.0 ⇒ 수산업의 생산, 가공, 유통 혁신, 안전한 수산물 공급 체계 확립

## ■ 질의응답

- 배심원 : 수산자원과와 어촌사업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담당자 : 1차 작업(수산자원과)을 한 제품을 가공, 유통, 추출은 어촌사업과 하는 것입니다.
- 배심원 : 바다가 아니고 육지에 한다는 건가요?
- 담당자 : 간척지를 활용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기재부 땅, 농림부 땅으로 육지화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형 양식장을 만들어서 생산, 가공, 유통까지 하려고 합니다.(20 헥타르 중 8 헥타르)
- 배심원 : 민자나 기업유치도 고려하고 있나요?
- 담당자 : 민간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기반사업을 확충해 놓을 예정입니다
- 배심원 :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힘들 것 같습니다.
- 담당자 :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우리 충남도는 치어생산(종자생산)을 해서 양식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 양식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 배심원 : 소유권을 민간에 주나요?
- 담당자 : 소유권을 민간에 주기는 어렵고, 도에서 가지고 있으며 임대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당진시)
- 배심원 : 도의회나 시의회에서 조례를 바꿔서 임대료 등을 올리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 담당자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에 굳이 임대료 수입을 위해 운영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양식을 하는데 바다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담당자 : 바다는 가두리양식이고, 육상은 pp수조 원형 8M에서 생산, 출하합니다. 스마트양식은 어류, 수질 등을 모두 고려해서 pc로 관찰하면서 양식합니다.
- 배심원 : 타지역도 하나요?
- 담당자 : 경상남도 등 전국적으로 2, 3군데 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어느 정도 단계인가요?
- 담당자 : 모두 이제 시작단계이고, 민간에게 임대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3면이 바다인데, 침단양식 방식이 필요할까요?
- 담당자 :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수산 선진국 등에서도 최침단양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품목은 어떻게 되나요?
- 담당자 :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배심원 : 치어판매도 하신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 담당자 : 도의 어민들이 하고 있는 3가지 품종 외에서 하려고 합니다. 내년 3월까지 용역을 통해 자료를 보충하려고 합니다.



## 나. 2분임 (홍주)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 [2-9-2] 고령·은퇴 농업인 정년제 도입

####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명 변경, 공약 통합

변경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 정년연금제도</li> <li>• 경영이양직불제(농지 임대.매매시)시범 실시</li> </ul>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은퇴 농업인 연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0세이상 고령농 은퇴시</li> <li>· 기본연금(면적 5구간) : 3,500천원~5,500천원 차등지원</li> <li>· 면적당 : ha당(매도 4,400천원, 임대 2,400천원) 지원</li> <li>→ 은퇴농업인 이양농지를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배정</li> <li>* 최종방침 결정 전으로 지원 금액 등은 변경 가능</li> </ul> </li> </ul>

- 당초 공약 취지

- 정년제) 60세 이상 농업인의 경영이양 약정시 국민연금 보험료 추가지원
- 연금지) 73세(예시)도래시 경영이양 시점부터 연금 추가 지급
- 직불금) 농지이양 은퇴 직불금 도입, 농가당 600만원 수준(윤당선인)
  - 고령농 정년은퇴 유도 및 청년의 원활한 농지권 확보 지원
- \* 2020 설문) 65세 이상의 58.3%는 경영이양 의사가 없고 사망시까지 현재 규모의 농사를 계속 짓겠다고 응답

- 조정 요청 사유

- 정부의 여러 사업들과 유사하고 복잡하여 당초 공약취지와 같이 경영이양(고령농 은퇴, 청년농 경작권 확보) 등에 유리한 정책으로 통일
  - ▷ 국민연금 지원(농식품부 / 월 최대 45,000원)

- ▷ 건강보험료 부과시 차등 지원(농식품부)
- ▷ 경영이양직불금(ha당 매도 3,300천원, 임대 2,500천원) 지원

## ■ 질의응답

- 담당자 : 농업인 정년연금제도를 도입하고 경영이양직불제를 시범 실시하는 것이 당초 공약이고, 이 두 가지를 통합하여 고령·은퇴 농업인 연금지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충청남도가 농업인 감소폭이 크고 고령화도 빨라서 10년 후에는 농업인 60%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농업 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율이 산업 재해율에 비해 1.5~2배 높습니다. 당초 공약취지와 같이 경영이양을 위해서는 농업 세대교체를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농업인 간담회를 진행하였는데, 가장 큰 진입장벽은 농지확보의 어려움, 농업이 생계 유지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 배심원 : 연금을 한 달에 그렇게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 담당자 : 자료에 있는 농지 관련 연금은 달이 아닌 연간 지원 기준입니다.
- 배심원 : 가지고 있는 농지를 자녀에게 상속했을 경우에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담당자 : 70세 이상 농업인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제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 자녀에게 이미 넘어갔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배심원 : 이미 상속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상속할 예정인데도 해당이 되지 않나요?
- 담당자 : 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농지 임대인을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 배심원 : 상속 예정까지 인정하게 되면 자녀는 도시에 있는데, 농사를 짓는 것처럼 제도를 악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배심원 : 어르신들이 땅을 내놓으면 정부 소유가 되는 것인가요?



- 담당자 : 농지 매도도 가능하지만, 임대도 가능합니다.
- 배심원 : 자녀에게 임대를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담당자 : 자녀에게 임대는 가능합니다.
- 배심원 : 매도의 경우 지급금액 예시가 나와있는데, 이처럼 임대에 대한 지급금액 기준표도 있는지요?
- 담당자 : 농지 임대는 면적에 대한 연금의 절반입니다. 기본연금은 동일하고, 여기에 면적 연금의 절반을 합친 것이 임대에 대한 지원 금액입니다. 0.5ha의 경우 매도 시에 기본연금이 350만원이고, 면적연금은 240만원이어서 이를 합치면 590만원입니다. 이를 매도가 아닌 임대로 할 경우에는 기본연금은 그대로 350만원이고, 면적연금은 그 절반인 120만원으로, 합산하면 470만원이 됩니다.
- 배심원 : 청년들이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으로 청년들을 불러들이는 것이 목적 중의 하나라면 사업을 여러 부서가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 담당자 : 여러 가지 일들을 부서 특성에 맞게 추진하고 있고, 청년 정책 관련 부서에서도 관련하여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청년 정책 관련 부서와 옆에서 진행하는 만큼 좀 더 유기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배심원 : 지원 금액에 대한 부분 등이 너무 복잡해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받아야하나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단순하게 해야 합니다.
- 담당자 : 복잡한 사업이지만, 농업인들에게는 쉽게 풀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보시고 계신 자료들은 공무원용 사업 자료이기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용 사업 자료는 사업 준비 시에 철저하게 빈틈없이 하기 위해 지침을 최대한 꼼꼼하게 반영하여 자세하게 만든 것입니다. 농업인들에게 알리는 홍보자료는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구성하고, 영상 등을 제작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배심원 : 농민수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안 되어 12월로 미뤄져서

농민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그 작은 농민수당도 안주면서 이런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 담당자 : 농민수당은 보건복지부와 변경 협의 대상입니다. 1인당 50만원, 2인당 9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안이 2년 동안 유예가 되어서, 작년 연말에 올해 3월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보건복지부에 올렸는데, 잘 안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제도협의회가 12월 안에 끝난다고 하여 2년의 영향평가가 끝난 후 바로 해달라고 하였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변경안대로 되지 않는다면 연내에는 원래대로라도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일선에서는 농민들이 정부 지침에 따라 협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힘센 충남을 모토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농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진행이 될까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담당자 :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농식품부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감 기간이 끝나는 20일 이후에 만나서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재부에서 안된다고 해서 원래대로 돌아갈 것 같은데,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지 좀 더 협의해야할 것 같습니다.
- 배심원 : 농민 은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담당자 : 원래는 은퇴수당 관련해서 10월 안에는 계획을 마무리하기 위해 사전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확률은 반반인데 거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배심원 : 당초 공약내용에 있는 농업인 정년연금제도는 농지 매매나 임대와 관련없이 진행하려고 했던 것인가요? 농지 매매나 임대를 하지 않아도 연금을 지원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 담당자 : 아닙니다. 경영이양 약정 시 연금을 지급한다는 당초 계획에서 경영이양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이양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매매나 임대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 배심원 : 연금 제도를 시행할 때 농민들에게 얼마를 주고, 농민들은 얼마를 받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 담당자 : 농업인들이 은퇴를 하셨을 때 충분하게 지원을 받게 하고 싶지만, 앞으로 더 많은 농업인들이 지원을 받게 되는 때도 고려해야 합니다. 농업인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지, 청년들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농민들에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충남발전연구원과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본 연금이 0.5ha에 350만원인데, 기본금 산출식에서 170%를 곱하는 것이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의 공익적 기능 등을 고려하여 기본금을 충분히 산출하였습니다.
- 배심원 : 2022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166,887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농업인 연금은 여기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최저생계비가 간단하게 살 수 있는 최저 기준인데, 이를 고려해서 농업인 연금 기준이 적정한 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담당자 : 이 제도 뿐만 아니라 노령 연금 등 여러 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 제도를 합산하여 실제 농업인 연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통해 얼마를 채울 수 있는지 그 관점에서 접근해보겠습니다.
- 배심원 : 연금 지원 사업이 이뤄지면 농업인의 수당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인가요?
- 담당자 : 농업인 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도의 재정상황도 고려하면서 좀 더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3-11-3] 보육료 합리적 조정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명 변경

변경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 아침·점심반 시간 연장 및 보육료 지원 단계적 상향</li> </ul>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료 합리적 조정</li> <li>① 정부미지원시설(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100% 지원</li> <li>② 정부지원시설(어린이집) 유아반 교사 인건비 100% 지원</li> </ul>

- 당초 공약 취지

-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 친화적 보육 환경 조성(공공성 강화)
- 정부미지원시설 및 정부지원시설간의 「보육료 격차 해소」

- 조정 요청 사유

- 어린이집 유형 간 지원 기준 수치화
  - 민간·가정어린이집(정부미지원) 만3~5세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 지원보육료 간 차액 발생 금액 지원
  - '23년 기준 표준보육비용은 인상예정으로 무상보육 추진을 위해 새로운 표준보육비용 전액 지원 필요(차액보육료)
- ①정부미지원시설 표준보육비용 100%지원, ②정부지원시설 인건비 100% 지원

■ 질의응답

- 담당자 : 표준보육비용이 지역마다 다른데, 충남도에서는 100% 지원하려 합니다. 정부미지원시설에는 표준보육비용을 100% 지원하고, 정부지



원시설에는 유아반 교사 인건비를 100% 지원할 예정입니다. 명칭변경을 하며 명확하게 수치로 100%로 표현하였습니다. 서울시는 100% 넘게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시 말고는 표준보육비용이 100%가 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충남도가 서울시 다음으로 표준보육비용 지원을 많이 하게 됩니다.

- 배심원 : 표준보육비용 100% 지원하는 안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더 이상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만족합니다.
- 담당자 : 그래서 명확하게 100%를 지원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 배심원 : 연차별로 지원 비용이 상향되는 것인가요?
- 담당자 : 매년 단계별로 상향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매년 100%를 지원합니다.
- 배심원 : 지원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 담당자 : 만 3세의 경우 2022년을 기준으로 43만 2천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산정하여 발표하는데, 2023년에는 2022년 보다 10만 원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지원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 담당자 : 1인당 지원 금액이 많아서 전체 비용도 많이 듭니다.
- 배심원 : 출산율이 떨어짐에 따라 아이들이 점점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담당자 : 우리 충남도만 해도 어린이집이 해마다 100개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최대한 지원 범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은 막기 어렵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더 지원하려고 합니다.
- 배심원 : 아이들이 줄어들지만, 그만큼 더 지원되는 듯 합니다.
- 담당자 : 올해 예산이 800억 원인데, 내년은 1200억 원 이상 됩니다. 아이들이 줄어든다고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어린이집 지원을 강화하려 합니다.

- 배심원 : 예전에는 사립 어린이집에 100% 지원하지 않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차등을 두고 지원하다 보니 국공립으로 부모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 담당자 : 그래서 이제는 정부미지원시설에도 표준보육비용을 100% 지원합니다.
- 배심원 : 정부미지원시설은 사립 어린이집, 정부지원시설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 담당자 : 네, 맞습니다.
- 배심원 : 민간어린이집이 차등 지원을 받아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찬성입니다. 100%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담당자 : 더 이상 지원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배심원 : 워낙 저출산이라서 몇 년 전에 잘되는 어린이집은 대기도 많았는데, 지금은 대기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아이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어린이집에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 담당자 :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을 당장 막을 수는 없지만,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하려고 합니다.
- 배심원 : 아동 학대나 그런 것도 관리감독 하는지요?
- 담당자 : 분야가 다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어린이집 지원 관련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많이 어렵습니다. 재정이 어려우면 선생님들이 적어서 아이들이 소외될 수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면 환경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맞는 말씀입니다. 충남도가 도 단위에서는 최초로 진행하는만큼 더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 배심원 : 예산은 모두 확보가 된 것인가요?



- 담당자 : 현재 내년 예산은 모두 확보된 상태이고, 의회에서 승인만 남아 있습니다.
- 배심원 : 도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어린이집에만 도움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100% 학부모들에게 혜택이 되는 것인가요?
- 담당자 : 표준보육비를 어린이집에 지원하면 어린이집 세입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학부모에게 걷는 비용이 줄어들기에 결국에는 가정에 혜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배심원 :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해도 애들과 가정에 100% 혜택이 된다는 보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지도 점검을 통해서 혜택이 돌아가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보육의 질 향상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배심원 : 돈만 주는 게 다가 아니라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 담당자 : 네, 알겠습니다. 잘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 배심원 : 변경전 공약 내용에 있던 보육시설 아침, 점심반 시간연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담당자 : 해당 내용은 이미 중앙부처 사업으로 기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배심원 : 공약이 단계적이 아니고 내년부터 바로 실행되는 것인가요?
- 담당자 : 네, 맞습니다. 내년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3-11-4] 워킹맘을 위한 초등돌봄체계 확립**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명 변경

변경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돌봄시스템 맘투게더 구축</li> </ul>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워킹맘을 위한 초등돌봄체계 확립</li> </ul>

- 당초 공약 취지

- 부처별 개별사업으로 진행되는 돌봄서비스로 인해 수요자 및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어려움
- 분절된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이고 통합적 관리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돌봄체계 확립 필요

- 조정 요청 사유

- 종합돌봄시스템 구축은 초등돌봄체계 확립을 위한 세부사항임
- 공약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종합돌봄시스템 구축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인 워킹맘을 위한 초등돌봄체계 확립으로 공약명 변경 조정 요청

■ 질의응답

- 담당자 : 종합돌봄시스템은 여러 부서가 함께 진행해야하므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를 초등돌봄체계로 범위를 좁혔으면 하는 게 인수위 때부터 논의된 사항입니다. 돌봄체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용역을 시행해서 얼마 전 결과가 나왔습니다. 센터를 만들기 위해선 여러 제반사항이 필요합니다. 올해까지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센터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하게 된다면 어디에 할



것인지 등의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현재는 정부 방침을 얻어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단은 현장에서의 요구사항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까지는 진행하였습니다.

- 배심원 : 뉴질랜드는 돌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와 많이 다릅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한군데 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시켜줍니다. 센터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하며, 운동도 가르치고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그러다보니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담당자 : 덴마크, 일본 등 외국 사례 자료를 연구하였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돌봄시스템이 잘되어있는 외국을 보면 몇 가지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관련 법령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그 법령으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흔들리지 않고 구심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하고 있는 돌봄, 지자체에서 하는 돌봄 등이 많이 다릅니다. 학교에서의 돌봄은 학교 전까지만 해당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시골의 환경보다 학교시설이 좋으니, 학교 문만 열어주면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돌봄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학교장 승인 여부에 따르기에 제약이 있습니다. 당진시는 주민협의체가 잘되어 있어서 주민들 뜻이 맞으면 이러한 돌봄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도 수렴하고 정부 정책도 고려하여 잘 추진하겠습니다.
- 배심원 : 지역에 있다보면 여러 가지 돌봄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는데,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잘되는 곳도 있겠지만,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충남도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다 융합해서 진행하는 것은 어떤지요? 돌봄센터를 만들고 시범적으로 충남에서 진행하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고, 그러면 중앙부처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담당자 : 시군마다 상황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학교에서 돌봐주다가 학원에 잠시 다녀온 후에 다시 학교 돌봄 교실에서 아이를 받아주면

좋은데, 일단 나가면 안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선생님이 직접 아이들을 모아서 돌봄교실을 해보겠다고 하시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선생님이 직접 영어, 피아노도 가르치고, 다른 선생님을 불러서 악기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한 퇴직하고 나니 아이들 가르치고 싶은데 아이들이 없는 경우,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 등 지역마다 여러 가지 경우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면밀하게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부부처에서도 이런 돌봄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배심원 : 미래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예산이 밀리면 안될 것 같습니다.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됩니다. 정말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겠지만, 이걸 절대 밀리면 안되는 것입니다.
- 담당자 : 현실적으로 애로점이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준비할 부분이 아직 남아있으니, 잘 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배심원 :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절대 줄이면 안됩니다.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꼭 제안하겠습니다.
- 담당자 : 감사합니다.
- 배심원 : 센터를 따로 구축하는 것보다 기존의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어떤지요?
- 담당자 :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센터를 신규로 만드는 방법,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탁을 주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법, 교육청과 협의하여 거점별로 학교를 운영하는 방법 등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시군 직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다면 의견이 다 다르고, 지역별로 매우 다양합니다.
- 배심원 : 행정에서는 규제를 완화해서 자격조건을 풀어줘야 돌봄시스템이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 담당자 :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 선생님은 자격증 같은 요건이 분명합니다. 돌봄 관련해서 그런 자격이 없는데도, 아이를 돌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첫 번째로 성범죄 경력이 있으면 거르고, 신분을 조회합니다. 이런 제약조건이 있어서 조심해야할 부분이 많고, 이런 게 지연되는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 배심원 : 시에서 방과 후 교사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이 자리에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 중에는 일자리를 위해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 심사도 하고,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을 거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등도 선정을 잘 해야할 것 같습니다.
- 담당자 : 아이들 돌봄 프로그램 중에도 아이들에게 무엇이 맞는지 의견이 다릅니다. 부모님들 의견으로는 영어, 수학을 최우선으로 꼽는데, 전문가들은 영어, 수학보다 인성 관련 교육을 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돌봄시설이 가까이 있는데도, 안 보내는 이유가 사교육 때문입니다.
- 배심원 : 지역별로 격차가 많습니다. 때문에 돌봄교사 자격 등 돌봄시스템을 확립해야합니다. 돌봄을 할 때 선생님이 애들은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 담당자 : 이런 이야기들을 교육청에 전달하고, 교육청에서도 공감하였는데, 실제 진행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다. 3분임 (충남어벤저스)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b>[3-10-3]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강화</b>
-----------------	----------------------------------

####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 변경(세분화)

변경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돌봄 강화</li> </ul>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증 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강화</li> </ul>

- 당초 공약 취지
  - 장애인 돌봄에 대한 전체적인 강화 추진
- 조정 요청 사유
  - 장애인 돌봄 대상을 세분화 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보호 강화 필요
    - 장애인활동지원대상 이외에 보호자의 긴급 상황 발생시,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사각지대 보완
  - 현재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된 5개 시군(천안,아산,서산,당진,홍성)에서만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중
    - 공약 세분화 및 구체화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미설치 시군(10개소) 100% 설치 완료 목표 설정 → 돌봄 사각지대 장애인 보호 강화

#### ■ 질의응답

- 배심원 :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공식적으로 함은 단체에 등록된 대상자인지요? 대상의 폭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 담당자 : 저희가 대상자로 구분하는 폭은 심한 자, 심하지 않은 자로 지금 구분되고 있는데, 심한 장애로 저희 사회복지관리망에 등록된 자가 대상입니다.
- 배심원 : 그 분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 담당자 : 현재 최근 자료로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4만 8천 9백 명 정도가 심한 장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배심원 : 그러면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혜택을 못 본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등록을 할 수 있나요?
- 담당자 : 장애인 분야별로 책정하는 분야나 지수 척도 같은 것이 다릅니다. 분야별로 면사무소 등 그런 곳에서 안내해줍니다. 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진료 기록지 같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 배심원 : 이상이 있으면 면사무소에서 얘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 담당자 : 네, 그렇습니다.
- 배심원 :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담당자 : 거의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배심원 : 대면으로 직접 봐야되지 않나요?
- 담당자 : 어떤 장애의 경우에는 출장 나가서 보기도 합니다. 지침이 다릅니다.
- 배심원 : 현재는 5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용자가 횟수 제한이 있는지, 그리고 비용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 담당자 : 작년에 시행해서 많이 편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작년 예산에 60%가 소진되었고, 한 사람당 1년에 총 64시간입니다. 솔직히 이용하셨던 분들은 너무 좋은 서비스인데 시간이 너무 적다라고 하십니다. 작년에 처음한 것이라 지침 개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존 것을 확대 개선할 예정입니다.
- 배심원 : 그러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호 케어하는 분들께도 혜택이 가

나요?7

- 담당자 : 그것은 아닙니다. 보호자 분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대신 봐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심원 : 혼자 살거나 그런 분들은 더 인센티브를 주나요? 아예 없는 경우는 다를 것 같습니다.
- 담당자 : 아직 그런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혼자나 단독으로 계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 배심원 : 지금 2026년 15개소로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시군을 늘리는 것에 있어서 시군별로 우선순위가 있나요?
- 담당자 : 센터를 개소하려면 근거 조례가 필요하므로 그런 조례가 있는 시군이 우선순위에 앞서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2개 시군에서 희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례 재정 조건이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배심원 : 준비된 시군부터 우선 지정해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 담당자 : 네. 그렇습니다.
- 배심원 : 조례가 준비되는대로 적극적으로 추진되나요?
- 담당자 : 네. 그렇습니다.
- 배심원 : 5개 시군을 운영하실 때 어려운 부분이 있었나요?
- 담당자 : 제공 인력들을 센터에서 관리하다 보니 기존 활동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플러스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칭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전용 인력은 거의 없습니다. 기존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짜투리 시간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하시는 분들이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다 보니 요청이 들어와도 잘 매칭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는 엄청 잘나왔습니다. 시간을 늘리거나 개선해서 활성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 배심원 : 다른 도에서도 하고 있나요?
- 담당자 : 서울시만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울시 것을 벤치마킹해서 하는 경우가 많



습니다.

- 배심원 : 코로나나 여러 변수를 생각할 때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담당자 : 네. 예산 부족하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배심원 :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잘 신경썼으면 좋겠습니다.
- 담당자 :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에 웬만한 경우엔 다 가능합니다.
- 배심원 : 연락을 받아서 긴급하게 매칭되는 구조인가요?
- 담당자 : 센터에서 가능하신 분을 연락해서 하는 것입니다.
- 배심원 :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무슨 일을 하나요?
- 담당자 : 발달장애인 대상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더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 배심원 : 5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각 시별로 인구대비해서 차별화된 점이 있나요.?
- 담당자 : 더 사업이 배정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올해부터 격차가 벌어져서 인구가 많은 시군에서 수요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를 따라 갈 것입니다.
- 배심원 : 어디가 수요가 더 많나요? 천안인가요?
- 담당자 : 천안이 아니라 서산 당진이 더 활발합니다.
- 배심원 : 서비스를 신청하는 신청자가 없는 것인지 처우가 불만족스러워서 매칭이 없는 건지요?
- 담당자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센터 성향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천안의 경우에는 이 사업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 된 것이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자체 마다 4명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버거운 지자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배심원 : 그러면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하위 기관은 따로 없는 건가요?
- 담당자 : 예. 센터에서 시군을 총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구수에 비해

서도 부족합니다.

- 배심원 : 현수막 같은 것도 눈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행정복지센터 같은 곳 등 어느 곳에서나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통장님 등을 통해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 담당자 :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배심원 :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시행해서 데이터가 많이 쌓여있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 담당자 : 맞습니다.
- 배심원 : 모든 게 기본적인 선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 담당자 : 맞습니다.
- 배심원 : 이용료는 이 정도라면 돌봄선생님들은 어떻게 받으시나요?
- 담당자 : 이용료 전체를 다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배심원 : 각 시군에서 어떻게 시행하는 지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담당자 : 네. 맞습니다.
- 배심원 : 도의 장애인구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담당자 : 도 인구의 약 6%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 배심원 : 계획 수립 시 연구나 그런 것이 별도로 있었나요?
- 담당자 : 아직 그런 것까진 없었습니다.
- 배심원 : 봉사자나 이용자 경험이 있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담당자 : 간담회도 했었고, 그 결과와 시도 의견 포함하여 변경할 부분은 변경하려고 노력중입니다.
- 배심원 : 나중에 확장이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 담당자 : 네. 감사합니다.



- 배심원 : 예산이 더 올라야할 것 같습니다.
- 담당자 : 네. 알겠습니다.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3-10-4]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보험료 지원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 변경(세분화)

변경 전	• 장애인 돌봄 강화
변경 후	•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보험료 지원

- 당초 공약 취지
  - 장애인의 이동권, 건강권, 인권보호 및 자립 강화 등 포괄적 개념으로 “장애인 돌봄 강화”를 공약으로 제안
- 조정 요청 사유
  - 장애인돌봄 강화를 실행을 위한 세부사업계획 제시 필요
    -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
    - 전동 보장구 사용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동 편의 제고

■ 질의응답

- 담당자 : 전동보장구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같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이 6천명인데, 사고 발생시의 본인의 경제적 비용 피해자 보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한도나 횟수 제한 없이 하고 다만 보험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사고 발생 시 자부담을 최대 20만원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 배심원 : 보험료 지원 받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담당자 : 장애 등급기준으로 보면 심한 장애인 경우 수급할 수 있습니다.
- 배심원 : 보험료 지원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 담당자 : 거동이 불편해서 전동보장구 이용이 필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배상책임에 대한 것을 해줍니다.
- 배심원 : 시도와 계약하는 것인가요?
- 담당자 : 시도와 일괄계약하는 구조입니다. 등록장애인 보험사로 통보 해주면 보험사가 지원대상자를 관리합니다. 재해보험과 같은 구조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 배심원 : 전동보장구의 경우 사이드 미러 같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 담당자 : 회사 모델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합니다.
- 배심원 : 기존 통계자료나 그런 게 있나요?
- 담당자 :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도 파악이 잘 안되긴 합니다. 간접적으로 확인 했던 것은 장애인 실태조사한 부분과 2015년도에 외부용역 사고경험 조사결과입니다. 30% 이상이 운행 중 사고를 경험한 것을 파악했었습니다.
- 배심원 : 조사 데이터 등 이런 것 없이 공약이 나온다는 것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지금이라도 조사를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 담당자 :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동보장구 이용을 하는 사람을 모두 조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시군 지원받은 데이터만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방법은 1차 년도에는 넓게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1년 정도는 하다보면 실제 이용하는 인원을 통해 지원해줬을 때 어떻게 배상했는지 보험사로부터 통계를 받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에 사업 설계할 때는 축소하던지 늘리던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보장내역을 보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배심원 : 신청을 해서 하는 구조인가요?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 담당자 : 기본적으로 전동보장구를 자주 이용하는 장애인은 특정 대상의 장애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되면 그 대상 장애인에게 전수



홍보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 배심원 :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잘 된다면 2023년에 시작되는 것이지요?
- 담당자 : 네. 그렇습니다.
- 배심원 : 다른 지역에서 시행중인 시도가 있나요?
- 담당자 : 광역은 없고 기초지자체 전주시와 경기도 광명시가 있습니다.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 변경(세분화)

변경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돌봄 강화</li> </ul>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도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설치</li> </ul>

- 당초 공약 취지

- 학대 피해장애인의 긴급돌봄 및 사회복지지원 등 포괄적 개념으로 「장애인 돌봄강화」 추진

- 조정 요청 사유

- 장애인 돌봄 대상을 세분화 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보호 강화 필요
  - 현재 피해장애인쉼터 1개소 운영중(공주시 소재)이나 생활공간 협소하여 남녀구분, 생활교사 사무공간 등 부족하여 추가 설치 필요
  - 학대피해장애인의 긴급돌봄을 위한 거주공간 설치 및 운영지원등 공약세분화 및 구체화 필요

■ 질의응답

- 담당자 : 저희 충남 도내에 한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주시에 있으나, 비공개 시설로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1개소이다 보니 남녀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용화장실 공용거실 사용하여 아무래도 분리가 필요합니다.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1개소를 확충해서 북부권에 천안시를 검토 중인데, 확정은 아닙니다. 올해 복지

부에 예산 지원을 건의하고 아직 확실히 확답을 받지는 못했지만 계속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2023년에 도비는 확보하였습니다.

- 배심원 : 개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요? 예산 4억은 적어보입니다.
- 담당자 : 도에서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있으면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고,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쉼터에 1억 8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4억이 일단은 아파트 매입하는 금액인가요?
- 담당자 : 확충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 배심원 : 금액이 적은 것 같기는 합니다.
- 담당자 : 맞습니다. 천안에서 자립형 아파트를 매입한 적이 있는데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복지부와 더 협의해서 예산 증액도 할 수도 있습니다.
- 배심원 : 참 좋은 제도이고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돈이 문제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만큼 그런 것을 꼭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담당자 : 참고하겠습니다.
- 배심원 : 정책 목표를 보면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에 따른 필요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가해자의 유형은 어떤 것인지, 신고자는 본인신고가 많은지, 신고는 어떤 유형이 많은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 담당자 : 신고 유형이나 가해 유형의 경우에서 학대 사례가 있다고 하면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가해, 신고 유형 이런 것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관에서 쉼터로 인계하는 것입니다.
- 배심원 : 이 쉼터에 긴급하게 오게 되고 일단은 비공개로 하는데, 머물 수 있는 최대 기간이 따로 있나요?
- 담당자 : 이 사례가 해소될 때까지는 머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 배심원 : 그런데 입소 정원이 8명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정원이 차는



경우 우선순위를 두나요?

- 담당자 : 다른 지자체까지 연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확충이 필요합니다.
- 배심원 : 방이 따로 있어도 공간을 같이 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인을 처음 대면하는데 불안하고 일상 생활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담당자 :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 배심원 : 혹시 지금 쉼터는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을까요?
- 담당자 : 지금 근무하는 분들은 3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 정원이 8명인 것이고, 이용자 분들은 한 4명 정도 됩니다.
- 배심원 : 8명이 다 차는 경우가 많나요?
- 담당자 : 종종 있습니다.
- 배심원 : 다른 지자체들도 하고 있습니까?
- 담당자 : 다른 지자체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소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 배심원 : 피해 성별의 차이가 있나요?
- 담당자 :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 배심원 : 매스컴에서 이런 사례들이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성인데 아이가 있다면 같이 입소가 가능한가요?
- 담당자 :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아동쉼터가 도내에 별도로 없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가장 가깝게는 가정에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분리하는 것을 불안하게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 단위 방 이런 것이 몇 개 정도는 상시적으로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 담당자 : 참고하겠습니다.
- 배심원 : 시골에서 보면 예산을 투입했는데,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

니다. 돈이 제대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에서 이런 것을 겸해서 살펴봐달라는 것입니다.

- 담당자 : 저희가 시설에 운영에 대해서 점검, 지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시도에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배심원 : 그럼 돌봄을 하시는 분도 같이 생활하는 상황인가요?
- 담당자 : 따로 분리된 공간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배심원 : 너무 취약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담당자 :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 배심원 : 생활교사의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담당자 : 네. 알겠습니다.
- 배심원 : 공주시에서 하게 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 담당자 : 사회복지 법인에서 신청해서 진행된 사안입니다.
- 배심원 : 잘되어 있는 시도가 있을까요?
- 담당자 : 그 부분은 더 찾아보겠습니다.
- 배심원 : 중장기 계획안에 반영되어 있나요?
- 담당자 : 아직은 쉼터 설치까지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설치되면 운영과 같이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 배심원 : 더 수요가 늘어나거나 하면 더 예산 투입을 할 수 있나요?
- 담당자 : 네. 그렇습니다.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 변경(세분화)

변경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돌봄 강화</li> </ul>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운영</li> </ul>

- 당초 공약 취지
  - 장애인의 이동권, 건강권, 인권보호 및 자립 강화 등 포괄적 개념으로 “장애인 돌봄 강화”를 공약으로 제안
- 조정 요청 사유
  - 장애인돌봄 강화를 실행을 위한 세부사업계획 제시 필요
    -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역장애인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 구축 필요
    - 장애인 건강증진사업 네트워크 구축, 검진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종사자 교육등을 지원하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운영

■ 질의응답

- 담당자 : 장애인들의 건강권이나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의료기관 중심으로 제공해야하는데 정보를 제공하는 중간 조직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 장애인들이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야 의료기관에 가는 상황입니다. 이번년도 공모사업에 흥성의료원이 공모해서 선정되어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것입니다. 현재는 센터 개소를 위한 직원 채용이나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센터 개소가 되면 장애인 건강 정보를 보건의료센터 중심으로 진행하고,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 여성장애인이 임신할 경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 정보들이 없으니 그런 것과는도 관련된 사업도 하고 여러 장애인 관련 사업이 많습니다.

- 배심원 : 흥성만 된다는 것인가요?
- 담당자 : 흥성군이 충남 15개 시군을 다 커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한계도 있긴 있습니다. 우선은 1개소를 지정하지만 천안아산에도 추가 지정할 계획도 있습니다. 아직 확정 된 것은 아니지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제발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담당자 : 네. 알겠습니다.
- 배심원 : 사업 내용이 좋아서 이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담당자 : 네. 알겠습니다.
- 배심원 : 잘 추진되었는지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 담당자 : 국립재활원에 중앙이 되는 보건의료센터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전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진행상황을 다 평가할 것입니다. 타 시도와 비교도 하고, 또 수혜자가 만족하는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이런 것도 합니다. 또 이런 것을 해왔던 외부 전문가들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 배심원 :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 등 이런 것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좀 더 신경써서 여러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담당자 : 참고하겠습니다.
- 배심원 : 운영 주도는 의료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아니면 도에서 하는 것이지요?
- 담당자 : 흥성의료원에서 주도해서 진행해갈 것입니다.. 센터장이 재활 의학과 전문의가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 라. 4분임 (공약 지켜보고있다)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선거공보] 유네스코 지정 갯벌 국립공원

###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 폐기

변경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네스코 지정 갯벌 국립공원</li> </ul>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li> </ul>

- 당초 공약 취지

- 유네스코 지정 갯벌 국립공원
  - 서천갯벌 국립공원 지정은 당초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천갯벌과 브라운필드 생태복원 지역을 연계하여 갯벌 국립공원으로 지정코자한 과제이며,
  -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추진하는 브라운필드 생태복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자연환경 가치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항임

- 조정 요청 사유

- “유네스코 지정 갯벌 국립공원”공약에 대한 전문가 및 지역, 관계부처의 서천갯벌 국립공원 지정 반대의사에 따른 공약 폐기 필요
  - (전문가)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자연환경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가치를 인정받은 사항으로, 하위 등급인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필요
  - (주민·서천군)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행위규제 강화와 지역발전 저해, 어업활동 지장 등이 우려됨에 따라 지정 반대
  - (해양수산부) 어업활동 규제 등으로 민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반대의사 표시



## ■ 질의응답

- 담당자 : 국립공원지정 검토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이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정부(환경부)에서 2009년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토지 매입과 정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6월에 정화사업이 완료되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천군 브라운필드를 포함해 '국제환경테마특구'로 지정 및 조성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 2월에 환경부 담당부서(자연생태정책과)와 미팅을 통해 이 사업을 정식으로 건의하였고, 환경부는 생태복원사업(브라운필드 재생)이 경제성 측면에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가 어렵다 판단하였습니다. 의견 중에 국립공원으로 지정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토지활용방안의 용역수행기관(국토연구원)을 통한 전문가(한봉호 교수) 자문 결과, 1. 자연공원법에 부합되지도 않고, 2.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가 극심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지역주민 반대로 무산된 사례도 제시하였습니다. 하여, 브라운필드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서천 갯벌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네스코 등재(2021년 7월)로 보편적 가치가 평가되었는데 국립공원 지정은 불필요하고, 2. 지역주민 반대 우려의 의견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3. 태안 국립공원 지정 추진 시 주민민원 발생으로 좌초된 사례입니다. 4.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 우려 등이 있습니다.

해수부 장관 출신 준비위원회 위원장님 의견을 반영하여 심층협의를 통해 공약 제외를 확정하였습니다.

- 배심원 : 저는 1차 회의 후, 서천을 두 번 방문하였습니다. 장항과 서천 일대(송림 초등학교부터 마을주변까지)를 방문해서 주민 의견을 직접 들어 봤습니다. 장항만으로는 국립공원 지정이 불투명하니, 서천 일부를 포함한다는 내용인데 민심을 들어보니, 장항 쪽 주민들은 찬성하는 분위기이고, 서천 쪽은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짧은 현장조사였으나,



제 의견은 주민의 의견을 좀 더 세밀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배심원 : 반대로 국립공원을 지정했을 때 지역의 브랜드 가치(경제적 파급효과)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어떨까요?

서천은 관광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태안의 국립공원보다도 홍보가 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국립공원으로 재산권 피해 등을 우려하기 보다는 지역의 브랜드 가치로 얻을 수 있는 이점(예. 관광자원을 통해 소득증대)등을 소통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봅니다. 지역 전체가 발전되면 개인들도 함께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큰 맥락으로 바라볼 때, (교육차원이라도) 제 아이가(13살) 커서 국립공원을 통해 우리지역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갈등을 극복하고 힘들게 이루어낸 국립공원 지정은 미래세대에게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 담당자 : 국립공원 지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네스코에 등재된 유산은 6년 동안 평가를 받아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관리 소홀, 훼손 등) 등재가 취소될 만큼 철저한 관리 하에 있습니다. 철새 기착지인 유부도 등 서천은 생태도시를 지향합니다. 이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전문가들과 좀 더 깊이 있게 상의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배심원 : 해당지역에 사는 주민의견도 중요하겠지만 도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국립공원지정에 대해 주민공청회나 주민 설명회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 장점과 단점 등을 소통을 통해 이해시키고 단계적인 설득과정을 통해 과정에 있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담당자 : 꼭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브라운필드 재생사업이 예타타당성 조사에 통과되어 선정이 된다면, 예상 완료시기가 2029년입니다. 기본구상은 생태복원 후 국립공원 지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 동안 충분히 검토(전문가, 주민 등)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할지를 결

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 배심원 : 정부와 지자체가 협심하여 주민들의 오해와 우려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경제적, 문화적 측면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면 좋겠는데, 여지가 있을까요?
- 담당자 : 생태적 가치를 보존 활용하기 위해 환경부, 해수부 등과 협업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 배심원 : 도지사님이 공약을 거셨으면 다양한 노력이 보여야 하는데, 자료와 과정이 빈약하고 '폐기'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말인가 의아했습니다. 폐기라는 단어 사용으로 각자 바쁜 시간에 배심원으로 왜 불렀는지 감정적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 담당자 : 생태공원 클러스터(브라운필드재생 후 국립공원지정)로 조성인데, 공약이 목록화되면서 나뉘어 오해가 있었습니다. 폐기라는 단어 설정이 배려가 없었음에 송구합니다. 추진 로드맵을 보면 2023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24년에서 29까지 생태복원이 완료되면 이를 기반으로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계속사업이긴 하지만 검토사항으로 제외하려다 포함된 내용이어서 오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배심원의 앞선 의견에서, 주민에게 생태보존이 실이 아니라 득이 될 수 있도록 설득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말씀드리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2020 생태관광 활성화 조례 지정, 지역의 생태자원을 홍보하고 생태보존과 활용이 주민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과정 있습니다.
- 배심원 : 유네스코 유산을 통해 얻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자연유산의 진정성을 보존하는 것이 핵심인데 주민들을 비롯하여 이해관계자들이 경제적인 이득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실행주체의 정교한 균형과 조율이 필요할 듯 합니다.
- 담당자 : 유네스코 자연유산(갯벌) 담당부서는 따로 있지만, 생태자연자산을 하나로 동떨어져 생각하지 않고 통합적인 시애에서 시너지 효



과가 일어날 수 있게, 보존과 개발의 양면에서 '자연유산을 보존하는 것 자체가 지역의 이익'이라는 것을 주민들을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배심원 : 제주도의 올레길이 유행한 시절이 있었는데, 이처럼 좋은 아이디어(공모전 등)가 있다면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특별한 경험이 있다'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디어가 주민, 전문가 등을 통해 홍보,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3-10-10]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지원**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사업내용 변경

변경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직활동 촉진 지원금(연 1,000명, 1인 5만원) 지원</li> <li>• 새일센터(10개→15개) 확대 운영 *광역 제외</li> </ul>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충남형 직업교육훈련과정 개발 보급 등 지원강화</li> <li>•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미설치 시군에 대한 취업지원사업 확대</li> </ul>

○ 당초 공약 취지

- 취업취약계층인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필요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인프라 확대 및 구직활동 지원 강화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구직활동촉진지원금 지원(연1,000명, 1인 5만원)
  - 새일센터 전 시군 설치 확대(현재 10개소→ 목표 15개소)

○ 조정 요청 사유

- 구직활동 촉진 지원금
  -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구직활동촉진지원금으로 1인 연1회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공약 취지인 경력단절여성등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에 미치는 영향 미미 판단
  - 도에서 기추진중인 타부서 사업(자격증 취득비용 지원사업\*, 충남 면접비 지원사업\*\*)과 내용 유사·중복
    - \* 자격증 취득경비 1인당 최대 50,000원
    - \*\* 1인당 40,000원 지급, 연간 1인당 최대 3회
- 새일센터(10개→15개) 확대 운영



- 센터 미설치 5개\* 시군은 지역 특성상 여성 농업종사자가 다수로 경력단절 여성 및 수요 기업체 부족으로 지속적인 성과가 예상되지 않으며 사업의 시급성 부족

\* 계룡, 금산, 청양, 예산, 태안

- 무조건적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운영보다는 시군의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

⇒ 따라서 당초 공약의 취지를 살리면서 개선된 공약으로 대체 추진 필요

#### ○ 변경공약 세부 내용

- 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충남형 직업교육훈련과정\* 개발·보급 등 지원 강화

\* 지역의 여건에 맞는 훈련과정, 고부가 가치 직종(IT, 디자인 등) - 일자리 전문 기관 협조

➔ 고부가 가치 직종의 직업교육훈련 과정 개발 보급으로 경력단절여성 양질의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음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미설치 시군(5)에 대한 취업지원사업\* 확대

\* 지역대학, 직업교육훈련기관 등과 연계한 직업훈련교육 및 취업지원(4개 '22) → 5개 시군('23~))

➔ 시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에 맞는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지원 등이 효과적

### ■ 질의응답

○ 배심원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 담당자 : 당초 공약에는 구직활동 지원금을 1000명을 선발하여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새일센터를 10개에서 나머지 5개도 추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공약의 내용이 현실성이 부족하고 효율있게 장기적인 방안으로 검토하여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여

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와 1995년부터 준비하여 국비, 도비,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중앙에서 최종심사를 선정된 시군에 새일센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결혼, 육아 등 기타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있던 여성들이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 창업, 교육, 상담, 구직, 사후 서비스까지 지원합니다. 이 센터는 매년 그 해의 선정 방침과 함께 센터 수가 공고됩니다. 시장 군수의 지역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에서 자격심사를 거쳐 중앙청으로 보내 최종 자격요건이 선정되면 해당지역에 설치되는 것입니다. 촉진지원금은 충남 일자리진흥원과 내용이 중복됩니다.(함께 포함하여 진행예정) 새일센터가 도내에 10개가 있는데 이 센터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시군별 특성을 반영한 직업훈련과정을 선정, 개발, 발굴하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고부가가치 직종(IT, 디자인)을 지향하고 지원금도 높인데 우리 도내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충남일자리진흥원(위탁 중)과 협의하여, 충남형 맞춤형직업훈련과정을 발굴하여 보고를 해주면 새일센터에 적용하여 운영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광역단위 새일센터와 충남일자리진흥원과 이미 협의하여 기본구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설치하고자하는 5개 지역(계룡, 금산, 청양, 예산, 태안)은 중앙에서의 심사 자격요건에 맞지 않고, 수요가 전혀없는 실정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이 없다?) 하여, 여성회관 등에 직업상담사를 파견, 지원하는 것과 교육기관(대학 등) 지원을 5개 시군에 단계적으로 확대, 변경하려고 합니다. 여성가족연구원과 충남 일자리 진흥원(광역센터)을 통해 5개 시군에 지원방안과 효율성에 대해 연구용역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 배심원 : 자료를 기반으로 어느 도시의 사례를 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아산시나 홍성 등 교육생들이 구직 연결 또는 교육 커리큘럼 등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매칭된 성과도 궁금합니다.
- 담당자 : 아산시 건강한 웰빙푸드 조리과정, 양성과정 등. 시군별로 내용이 다양합니다. (아산 작년기준)과목별로 20명에 수강해서 17명이 취업 성공하였습니다.
- 배심원 : 성과만 봐서는 대단하지만, 2019년 뉴스 기사를 보면 새일센



터 취업한 10명 중 4명 1년도 못버텨서 오리혀 경력단절을 재생산하게 됩니다. 이런 기사가 실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담당자 : 이를 위해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교육 과목자체가 너무 형식적입니다. 고부가가치 직종이 더욱 많아야 하고, 온라인 교육으로도 확장해야 합니다.
- 담당자 : 그래서 전문기관인 일자리진흥원을 통해서 고부가가치 직종을 개발해서 새일센터에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단순화된 직종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고부가가치 직종개발의 필요성 인식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새일센터 5개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는 대신 다른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나요? 학교와 교육기관 연계 등 많은 말을 했지만 구체적인 느낌이 없습니다.
- 담당자 : 현재 학교와 교육기관 연계는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이라 해서 예산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 
- 배심원 : 다시 질문하면, 새일센터 5군데를 확장하지 않은 지역에 한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담당자 : 지역 여성인적자원이라 해서, 청양 빼고 4군데 시군에 도비를 지원합니다. 4개 시군에 매년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 구직활동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청양도 도입 예정입니다.
- 배심원 : 경제적 가치를 따지자면, 새일센터가 없어도 새일센터에 들어갈 예산에 준하는 혜택을 해당지역 경력단절여성들이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나요?
- 담당자 : 작은 규모의 새일센터는 연 3억 정도, 큰 규모는 6억 정도의 운영비와 인력비가 소요됩니다. 수요가 많지 않은 곳의 새일센터는 3억이라는 돈을 그냥 소비하는 것입니다.
-



- 배심원 : 아니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는 왜 있습니까? (다 없어야 하지요) 거점 센터가 있어서 인건비를 받는 구 성원들이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무언가 새로운 기획을 일을 하겠죠. 그 것이 대상이 없어서, 수요가 없어서 늘겠습니까?
- 담당자 : 새일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력단절여성의 수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직을 필요로하는 경력단절여성이 직접 찾아와야하고 그분들을 매칭할 수 있는 기업체가 있어야하는 상호작용이 있어야합니다. 5개 시군에는 비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 배심원 : 효율성만 따지면 직접적인 지원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인 당장 일회성은 되지만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야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격인 듯합니다. 새일센터가 없는 지역에 다른 센터에 준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 담당자 : 새일센터가 없는 5개 시군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위해 축소해서라도 새일센터 기능을 지원하고 점차 확대하려고 합니다.
- 배심원 : 변경 후 예산은 1/10입니다. 나머지 예산(90%)이 이 분야에 사용되나요? 사각 지대에 놓인 타겟(경력단절여성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나요?
- 담당자 :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야 하는데 새일센터를 설치할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지고, 수요가 없는 지역에 공급이 비효율적입니다. 예산은 추정치 일뿐입니다. 자격요건이 맞지 않는 지역은 중앙에 통과가 힘듭니다.
- 배심원 : 저는 유치원을 하고 있는데 새일센터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은 당연합니다. 수요가 없는데 무작정 공급만 하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배심원 : 기존 새일센터라는 플랫폼이 도시형에 적합한 것 아닌가요?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적합한 플랫폼이고,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농촌 지역이 부조화로 농촌의 경력단절여성들이 소외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기준에 맞지 않은 것은 아닌가요?



- 담당자 : 농촌형이 별도로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기준에 맞지 않다라기 보다는 시군에서 수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 배심원 :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지원'이라는 제목이 혼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부여의 경우는 새일센터 등이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과 기관의 지원 연계가 잘 되어 보입니다. 농촌에도 시군별(추수시즌)로 특수 직종부터 다양한 직종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 담당자 : 공약 내용은 그대로 적어야 해서 삭제가 어렵습니다. 부여의 경우, 농촌특성을 살린 새일센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대표사례입니다. 다른 센터에도 전파 및 홍보의 필요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배심원 : 경력단절 여성의 통계가 있나? 자료가 부실합니다.
- 담당자 :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 배심원 : 공공기관에 가면 구직연결을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홍보가 덜되어 알지 못하는 개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새일센터를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지역별로 여건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과 수요조사를 통해 여건이 맞으면 새일센터는 향후에도 설치 가능합니다. 현재는 시군별로 수요가 없습니다.
- 배심원 : 구직촉진금이 중복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 정책 등에서 지원하는 구직활동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말입니다.
- 담당자 : 타부서에서 진행 중인 사업 신청자에 한해서 면접비와 자격증 취득비용 등이 지원되는데, 중복지원은 안될 것입니다. 일자리 부서만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있지만,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문제는 여성전문부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새일센터가 없는 시군이라고 해서 절대로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효율적이고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4-16-1] **e스포츠 메카 조성**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 통합

변경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 e스포츠 게임단 창단</li> <li>• e스포츠 메카조성(전국체전, 상설경기장 등)</li> <li>• 글로벌 e스포츠대회 개최</li> </ul>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스포츠 메카조성</li> </ul>

- 당초 공약 취지

- 추진 배경 : e스포츠 산업의 급속한 성장 및 위상변화(아시안게임 정식종목 채택 등)
  - 게임 종목사 및 해외 국가들의 e스포츠 시장을 공격적으로 확장
  - e스포츠 국제시장의 급변에 선제적 대응 필요
- 사업내용
  - 게임산업, VR·AR 등 메타버스 산업에서 앞서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글로벌 e스포츠 대회를 개최('24년이후 목표)
  - e스포츠 메카조성(e-스포츠 게임단 창단, 전국체전, 상설경기장 조성 등)

- 조정 요청 사유

- 당초 포괄적이었던 3가지 공약(e스포츠 메카 조성, e스포츠 게임단 창단, 글로벌 e스포츠 대회)을 'e스포츠 메카 조성'공약으로 통합하여 추진함이 효율적임
- 'e스포츠 게임단 창단' 공약은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성이 낮아 프로 게임단 스폰서십 등으로 대체 추진함이 적절함



※ e스포츠 게임단 창단에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지자체 차원에서 e스포츠 게임단 창단 사례 없음

## ■ 질의응답

- 담당자 : 3가지 공약(충남 e스포츠 게임단 창단, e스포츠 메카조성, 글로벌 e스포츠 대회 개최)을 'e스포츠 메카 조성' 공약으로 통합하여 추진함이 효율적입니다. '메카조성'이라는 단어에서 당초 공약 두 개의 공약이 포함되고, 게임단 창단만 삭제됩니다. 부지선정과정에서 부동산 카페에 내용이 유포되어 사실 왜곡으로 인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e스포츠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4차산업 기반으로 성장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메카조성은 두 가지의 인프라 구성과 생태계 활성화로 구성됩니다. 가변형 관람석으로 추후 마이스 산업 연계 또는 복합시설로 활용도 고려해야합니다. 사업비 180억으로 2035년까지 경기장 건립 예정이고, 주요 소비층인 MZ세대 유입을 위해 교통인프라가 좋은 천안아산역에 위치 예정입니다. 경기장 컨셉으로 1인 미디어를 위한 부조정실 구축 등이 있습니다. 충남이 타지역에 비해 지리적 장점, 산업적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상시 운영 예정(청소년, 대학, 직장인 리그 검토 중)이고, 전국 대회도 유치 예정(롤 대회와 월드챔피언십 유치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게임 산업과 관련하여 AR, VR 등 클러스터 조성 활용 예정.이고, 대기업(엔씨소프트, 크래프톤 등)과 협약 체결 예정(11월 예정)입니다. 게임산업 활성화(정보문화산업진흥원 협업)를 위해 게임기업을 유치하여 정주환경 지원 등을 할 예정이고, 게임단 창단은 스폰서십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타 지자체들이 국비(문체부)를 받아 건립했으나, 운영상 문제로 계속 지원을 재검토 중이며, 현재 건립비 30억 지원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문체부에서는 게임 전용경기장으로 설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당초 계획은 거창한 느낌입니다. 게임단 창단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은 상식적입니다. 그럼에도 공약에 넣은 것은 투자계획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충남이 e스포츠 인프라 확보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 것 같은데, 메카조성 하나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담당자 : 게임단 창단만 빠지고, 국제대회 유치는 그대로 내용에 포함됩니다. e스포츠 메카조성으로 디지털 도시를 지향하겠다는 도지사님의 큰 비전을 위해 행정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당초공약에서 조정안이 축소통합 되었는데 경제적 타당성이 조사가 되었나요?

○ 담당자 : 공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 배심원 : 스포츠단의 운영과 스폰서십은 다른 개념입니다.

○ 담당자 : 사전에 조사에 따르면, 게임단 창단 운영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 위주이고, 민간에서도 적자입니다.

○ 배심원 : e스포츠 시장이 활성화가 되었다고 했는데, 스포츠단은 왜 적자일까요? 생각 안해보셨나요?

○ 담당자 : e스포츠는 초창기입니다. 민간사업 위주이고 공공 쪽에서는 초창기이라 뜻입니다.

○ 배심원 : 초창기 아닙니다. e스포츠는 이미 20년이나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e스포츠라 뭉뚱그려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롤 말씀하셨는데 롤 하나만해도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 외 기타 다양한 게임들이 뭉뚱그려져 다 e스포츠라 해버리면 어불성설이고, 정확한 데이터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e스포츠에 230억을 쓴다고 하면 도민들이 모두 찬성할 것 같습니까? 명확한 데이터로 설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의견을 가진 도민들에게 230억을 쓸만하다고 설득할 수 있는 데이터 자료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 도가 발전하면 좋겠는데 기본적인 설득방안없이 왜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지 모르는 곳에 내 돈이 쓰인다는데 누가 좋겠습니까? 최소한 사업설명회를 듣고, 자료를 검토했을 때 필요성을 느껴야 하는데 데이터 분석자료 없이 설득이 너무 약합니다. 스포



츠단이 모두 적자인가요? 흑자는 없나요? 제대로 조사 분석해 보았는지 의문입니다.

- 담당자 : 10월부터 추진할 연구용역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배심원 : 2022년 1월 2일 120억 예산 투입된 e스포츠 경기장, 대회보다 행사 더 많이 치렀다는 온라인 기사가 있습니다. 국비지원 이유가 전용 경기장을 지으라는건데, 그 이유가 그 산업에 대한 발전을 위한 것이고, 그래야 다른 행사의 진행을 줄일 수 있습니다. 30억 지원을 받고 전용경기장을 설립하는 것보다 경제적 효과가 떨어져 추후 평가시 적자상황과 낮은 성과가 불안하여 국비 30억을 안받더라도 도비로 가변형으로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 담당자 : 우선 국비로 전용경기장을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문체부가 기재부에서 평가분석을 해서 공모사업 진행여부가 거려질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도비 예산을 투입하여 충당할 예정입니다. 예산확보를 위해 문체부와의 소통을 통해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 배심원 : 30억 지원받는 게 나은 방향 아닌가요? 이미 가변형으로 짓는다는 것이 거의 포기 아닌가요? 두 가지 방안(전용경기장, 가변형 경기장)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제적 타당성 검토는 언제 끝나나요?
- 담당자 : 경제적 타당성 검토는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예정이어서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보신 자료는 내부용이고, 연구용역이 나와야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 배심원 :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게 없는데 저희가 모여서 무얼 논의해서 정합니까?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 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스포츠단 이슈도 단정적으로 변경(창단에서 스폰서십으로)하는 것이 맞을까요?
- 담당자 : 현재 대전, 광주 부산 등 전용경기장 운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전용경기장을 짓는 것보다 국비를 포기하고 도비를 들여서라도 365일 운영을 돌려야 게임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배심원 : 가변형으로 되는데, 어떻게 365일 상시 운영이 되나요?
- 담당자 : 게임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게임이 없는 시즌에 다른 프로그램 운영할 예정입니다.
- 배심원 : 게임이 없는 시즌이 언제인지 확인 해보셨나요?
- 담당자 : 그 부분은 저희가 만들기 나름이라 생각합니다.
- 배심원 : 그러니까 저희에게 데이터 없이 평가하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 배심원 : 저는 수도권으로 경기를 보러 많이 가는데, 예매를 해도 종종 자리가 부족해서 못 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500석은 적은 느낌이고, 광주같이 1000석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게임회사와의 협약도 진행을 해야 하지만, 아프리카 TV나 트위치와 같이 다양한 방송매체도 협약이 필요합니다.
- 담당자 : 자리가 비어 있으면 보기 좋지 않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참관 가능하기 때문에 규모는 500석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어떤 콘텐츠를 운용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 배심원 : 현대나 삼성에서 농구, 배구 경기를 한다면 천안으로 보러가 잦아요, 메카라는 단어는 스포츠 성지를 만든다는 것인데 규모도 맞추어 키우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유입 또는 활성화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 담당자 :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학생,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까지 연간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기장 건립 전부터 생태계 활성화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 배심원 : 생태계라는 거대한 단어가 쉽게 쓰이지 않는데 이번 안전에서는 자주 등장합니다. 메카라는 단어도 그렇고, 생태계 구축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마일스톤, 그 로드맵을 가기 위한 단기 전략에 맞춰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등의 모니터링까지,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목표가 달성될 때 생태계 구축이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 배심원 : 긍정적으로 본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 수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공격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이왕하는 것이면 제대로 실행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이미 두 배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4배를 쓰던 10배를 쓰던 이를 통해서 그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고 고용창출이 일어난다면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게임 산업은 무궁무진한 고부가가치가 있습니다. 현대 이런 식의 사업을 진행하시려하는지요? 좋은 아이템이라 더욱 비판적이 됩니다.
- 담당자 : 게임단 창단 때문에 우려하는 것 같은데, 스폰서십 운용을 해 보고 추후에 창단도 가능합니다.
- 배심원 : 충남이 계속 대회를 유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영역을 육성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가능성을 제대로 된 조사, 분석을 통해 검증이 되어 제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공약 잘 지켰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들 적자났잖아요.
- 담당자 : 자료조사만으로 가지고 자료이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용역 결과를 통해 보완하겠습니다.
- 배심원 : 고령화 시대에 e스포츠 게임이 전 세대를 고려한 콘텐츠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니어들을 위한 e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등 말입니다.
- 담당자 : 충분히 공감하고, 지금 단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배심원 : 아까 말씀하신 타지자체의 경우 운영상의 문제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등 다른 분야의 정책들도 거점시설을 만들어 놓은 후에 운영상의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운영에 있어서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담당자 : 네, 있습니다. 문화콘텐츠를 전문으로 하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 경기장 건립과 생태계 활성화까지 전 부문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역과의 차별화된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e



스포츠게임활성화 추진단 워크숍에서, 유명 게이머들의 연습게임 및 부트캠프 등의 워크숍 운영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 배심원 : 타지역과의 차별화전략도 구상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담당자 :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게임개발 입주기업을 활용, 게임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크래프톤, 엔씨소프트와 협약 계획이 있고 입주기업들에게도 지원약속을 받았습니다.
- 배심원 : 충남지역에 대형 게임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본사 이전이 아니더라도 고객센터라든지 연구실이라든지 일부라도 충남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담당자 : 충남에 글로벌게임센터가 있고 좋은 평가도 받고 있어 연계 가능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 마. 5분임 (처음이에요!)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 [1-2-3]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벨트 조성

####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 통합

변경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소산업진흥원 유치</li> <li>• 블루수소 클러스터 조성</li> <li>• 블루수소 클러스터·수소산업진흥원 신설로 탄소중립 지원</li> <li>• 해양수소드론 허브구축</li> <li>• 석탄(CO<sub>2</sub>) → 석탄+암모니아(NH<sub>3</sub>)·천연액화가스(LNG) → 수소(H)에너지로 전환</li> <li>• 블루수소 클러스터·수소산업진흥원 신설로 탄소중립 지원</li> </ul>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벨트 조성</li> </ul>

- 당초 공약 취지

-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시대, 탄소중립·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
- 도내 세계 최대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를 구축 중에 있으며, 우수 해외 기업과 국내 대기업의 수소 관련 투자유치 및 기술협력을 위해 인프라 구축 필요

- 조정 요청 사유

- 수소에너지 관련 공약만 6개 공약으로 혼재되어 있어 조정필요성 제기
  - ① 수소에너지 융복합산업벨트 조성
  - ② 블루수소클러스터 조성
  - ③ 수소산업진흥원 유치

- ④ 해양수소드론 허브구축
  - ⑤ 석탄(co2) → 석탄+암모니아(NH3)·천연액화가스(LNG) → 수소(H)에너지로 전환
  - ⑥ 블루수소 클러스터·수소산업진흥원 신설로 탄소중립 지원
- 수소에너지 관련 공약은 현재 경제성 부족 사유로 민간주도사업 미흡
    - 정부 및 공공기관 주도의 사업화가 필요한 상황
  - 개별 사업에 대한 정부사업 추진보다 산업벨트 구축사업으로 일괄 추진이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 일괄 이행에 유리하다 판단되어 공약 통합

## ■ 질의응답

- 담당자 : 혼재되어있는 개별적인 공약을 하나로 통합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수소벨트라는 단일사업으로 묶었는데, 수소에너지의 현실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수출주도산업구조를 유로7에 맞춰서 개편이 필요합니다. 국가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의 접근성이 어려워서 환경을 국가차원에서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사업에 대해서 공약만 통합하였을 뿐이고, 하나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전담기관은 유치 추진중입니다.
- 배심원 : 임기 내에 어느 정도 실증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임기 후에도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준비중인가요?
- 담당자 : 수소 산업 실현을 2050년, 석탄관련은 2035년으로 예상되어 있어서 큰 사업들을 위한 관련 시설을 만들고, 앞서서 국책기관들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기반을 토대로 진행되었을 때, 2035년에 공약에 대한 큰 사업들의 내용들이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배심원 : 장항군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수소 관련 사업 부지만 구입하고 있고, 진척이 되고 있지 않



습니다. 계획을 보면 재원 마련 및 투입이 5년 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금액은 4조인데, 장흥처럼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및 관련 사업과 관련된 사전접촉을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 담당자 :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비의 경우 공기업 및 민간기업들과의 사업을 위해서 배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기 후에 배정된 예산이 많기는 하지만,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과 실증적 사업들은 임기 내에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산에서도 연구 및 기술 개발이 필요한 수소 터빈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수소가 전세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충남도가 이런 사업을 상용화 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수소충전소 사업이 빠져있는 것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 담당자 : 환경부 보급사업으로 별도의 산업 부분입니다. 관련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따로 진행중이기에 공약사업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서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주민분들의 민원이나 선호도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 배심원 : 수소 관련 사업비가 4조가 있는데 정부 지원은 얼마나 계획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담당자 : 4조 1,000억원이 공기업 등의 자산을 통해 산업부와의 민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남은 2,700억 중 정부로부터 지원 약속으로 400억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추후 1,200억을 추가적으로 국비로 확보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공기업들과도 차례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수소 사업 진행되면서 석탄 관련은 공해문제 등으로 인해 없어지는 것은 찬성입니다. 관련 일자리 종사자분들에 대한 추후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 담당자 : 다른 발전소로의 전환 배치를 통해 다른 기업들과의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려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 배심원 : 6가지 공약을 한 가지로 응축시키는데, 어떻게 합쳐지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 담당자 : 통합된 공약의 세부 내용을 보면 기존의 6가지 공약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공약에 대한 비율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단일사업으로 새로 배치한 부분입니다.
- 배심원 : 블루수소 클러스터가 무엇인가요?
- 담당자 : 수소 생성 후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블루수소 생성 클러스터이고,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블루수소는 무엇으로 만드는지요?
- 담당자 : 천연가스를 활용해서 만듭니다.
- 배심원 : 해양수소드론 허브구축은 무엇인가요?
- 담당자 : 보령시에서 지사님께 요청한 내용입니다. 화물 및 응급구조용 드론들을 개발하고 구매해서 보령시에서 활용하는 인프라를 구축해달라는 공약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연구를 임기 내에 진행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 관련 사업이 선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요? 다른 곳에서 선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요?
- 담당자 : 국토교통부에서도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 담당자 : 국비를 확보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사업들을 따오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배심원 : 전담기관 설치가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담당자 : 현재 국회에서 예산 설득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 배심원 : 수소도시는 어디에 진행하려고 생각중인가요?
- 담당자 : 보령시와 당진시를 생각하고 진행중입니다.



- 배심원 : 민간사업이 주도적으로 되어서 하게 되면 이익이 나와야 하는데, 전기료는 어떻게 설정되는 것인가요?
- 담당자 : 수소발전의무화 제도라고 해서 별도로 발전원가 균등화 비용을 통해서 가격을 설정하게 됩니다. 손해가 나지 않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역점] 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방안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일반사업 전환(역점)

변경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배출 단계적 감축</li> <li>- 석탄(co2) → 석탄+암모니아(NH3)-천연액화가스(LNG) → 수소(H)에너지로 전환</li> <li>- 석탄화력발전소 14기(기존 2기 포함) 2032년까지 단계별 폐지</li> </ul>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방안</li> <li>-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li> <li>- 정의로운 전환 기금 확충</li> <li>-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세수 감소 보전</li> </ul>

○ 당초 공약 취지

- 도내 노후 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화력발전소를 단계적 수소 에너지로 전환하여 탄소중립 실현

○ 조정 요청 사유

- 당초 공약은 화력발전소 폐지와 에너지 전환의 방법적 측면에 초점
  - 석탄 → 수소 에너지 전환, 석탄화력발전소 14기 단계적 폐지
- 탄소중립에 따른 에너지 전환 및 석탄화력발전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도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 강구 필요
  - 구체적 목표 설정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 및 후속 대안 마련

■ 질의응답

○ 배심원 : 14기 중 2기가 폐지되었는데 어떻게 활용중인가요?



- 담당자 : 보령 1, 2호기를 폐지할 때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소 혼소발전에 대한 연구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 배심원 : 발전소 폐지 세수 감소와 관련해서 지역민들에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인가요?
- 담당자 : 발전소 운영과정에는 맞춰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발전소가 폐지하게 되면 부족한 차액에 대해서 지원해줘서 충격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배심원 : 지원하는 금액은 한시적인가요?
- 담당자 : 2025년까지 한시적입니다.
- 배심원 :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기하게 되면 1기당 지원하는 금액이 다른가요?
- 담당자 : 그렇습니다.
- 배심원 :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폐지되는 지역발전소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면, 지역별로 활용을 특성있게 하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담당자 :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심원 : 소래 유투저장창고를 문화공간으로 잘 바꾸었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에 같이 해서 계획들을 수립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담당자 : 의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폐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앞서 주신 의견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운영만 차원을 하고, 시설은 유지해두는 것이 맞는 건지, 다른 발전소 운영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 배심원 :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 담당자 :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례에 따라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금액을 확대시키고 확보하기위한 노력에 있는 과정입니다.

- 배심원 : 전환특구에 대한 내용도 조금 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적용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담당자 : 부지활용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배심원 : 보령, 당진은 수소 관련해서 진행하는 것이 태안, 서천은 무엇이 진행되는가요?
- 담당자 :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은 수소 도시 사업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내용은 새로운 방향보다는 전환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내용들을 생각하기 위해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안과 서천도 다른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 : 폐지가 되면서 지역 공동화 현상에 대한 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담당자 : 그런 부분 때문에 공약을 변경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일반사업 전환(역점)

변경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칠갑산 관광자원 개발 및 콘텐츠 개발</li> </ul>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칠갑산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li> </ul>

- 당초 공약 취지

- 청양군 내 자연·문화자원의 보고인 칠갑산 주변을 대상으로 도립공원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관람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조정 요청 사유

- 칠갑산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지정 추진과 연계하여 자연·문화가치 보존과 기존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동시에 추진
  - 국가예산 투입으로 보다 전문적인 공원관리를 통한 자연자원의 체계적보전·관리
- 고품격 탐방서비스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칠갑산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내외국인 관광객 수요 증가 및 연계사업 추진 활성화
  - 공원 내 명품마을 조성, 주민가이드 등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

■ 질의응답

- 배심원 : 개발할 수 없는 도립공원임에도 불과하고 개발과 관련된 이런 공약을 내신 것인가요?

- 담당자 : 국립공원 승격과 공약에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약 통합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립공원 승격시 부가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배심원 : 주변의 농가분들에 대한 보상은 있나요?
- 담당자 : 국립공원 승격시 관리 주체가 도가 아니라 국립공단 차원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서 운영될 것입니다.
- 배심원 : 국립공원 승격이 100%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 담당자 : 국립공원으로서의 한계가 느껴지기 때문에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2023년 공원 조사가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 배심원 : 전체적인 기간은 얼마나 진행되는 것인가요? 2025년도 안에 진행이 되나요?
- 담당자 : 순차적인 절차대로 진행이 됩니다.
- 배심원 : 칠갑산의 규모가 국립공원정도의 규모가 아니고, 보존가치도 충분히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데 신청 자격이 되나요?
- 담당자 : 여건이 정확히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도에서는 좁은 면적에 대해서는 칠갑산뿐 아니라 다른 보존이 필요한 지역들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중입니다.
- 배심원 : 현재 국립공원에서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지역들을 국립공원으로 포함시키면 그 안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담당자 : 사유지 문제가 큰 문제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 되지 않도록 문화재 보호구역등을 먼저 생각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1년에 42만명의 등산객이 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00만명 정도의 등산객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해서 지역발전활성화를 위한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립공원이 될 경우 도에서 국립공원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보다 브랜드 가치 상승에 대한 이점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배심원 : 도민의 입장에서는 국립공원 수준을 맞추고 신청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 담당자 : 개발 및 콘텐츠 개발은 관광진흥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국립공원법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국립공원과와 따로 진행되면서 공약 실행에 대해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 태백산, 무등산 국립공원도 반대했지만, 막상 진행되다보면 이익에 따라서 찬성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과에서 사유지 매수를 최대한 진행하기도 합니다. 도예산으로 국립공원으로 관리하면 자연자원 보존에 한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이 될 경우 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역점] 소상공인·자영업 신용보증지원**

■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일반사업 전환

변경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자영업 신용보증지원</li> </ul>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실패자에 대한 재도약 기회 제공</li> <li>• 충남도 내 고용친화적 기업 지원</li> </ul>

- 당초 공약 취지

- 추진 배경

- 코로나19 등 경영상 어려운 도내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금융지원으로 안정적인 창업 정착 및 경영안정화 기여
- 대출지원에 크게 제한을 받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금융지원으로 원활한 융자 방안 마련

- 사업내용

-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및 이차지원
  - 일자리·취약계층 창업, 청년창업, 저신용, 골목상권
- 사업 실패자에 대한 부실채권 소각 후 금융 및 비금융 종합지원
  - 채무면책·파산면책 소상공인 등 채무소각 예정자

- 조정 요청 사유

- 매년 시행하던 기존사업이며,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경영해소를 위한 '23년 한시적 확대 보증지원으로서 역점과제로 조정 추진
- (기존) 매년 일정규모\*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및 1.7% 이차지원
  - \* '19년 1,300억원, '20년 1,400억원, '21년 1,750억원, '22년 2,700억원
- (확대) 3,000억원 보증규모 및 3.3% 이차지원(사업실패자, 청년창업 등)



## ■ 질의응답

- 담당자 : 한 번 파산되신 분들은 더 살아나기 힘들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 배심원 : 보증을 어디서 해주는지요?
- 담당자 :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소상공인은 사업규모를 감안해서 5000만원까지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 배심원 : 임기 내 연도별로의 사업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있는데 자료집에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을수록 대출과 같은 지원들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노력해주십시오.
- 담당자 : 네, 알겠습니다.
- 배심원 :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을 준비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담당자 : 고용친화적 기업 지원의 경우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5,000만원까지 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대의변제로 들어갈 경우 문제가 없도록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배심원 : 부실채권 소각은 계속 진행되던 사업 아닌가요?
- 담당자 : 그렇습니다.
- 배심원 : 소각 된 당사자는 면책이 되는 것인가요?
- 담당자 : 신용면책도 되면서 재차로 다시 보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 배심원 :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배심원 : 지원해주는 내용에 대해서 정보들을 더 잘 알려줄 수 있도록 방안을 생각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 3. 분임별 토의 내용 및 결과

#### 가. 1분임 (황금어장)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2-9-1] 충남형 세대통합형 리브투게더
-----------------	-------------------------

####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 통합

변경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형 농촌공간계획 수립 TF팀 구성 운영</li> </ul>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형 세대통합형 리브투게더 추진(농촌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 농촌형 리브투게더 사업」 내 전문가 자문·심의 기능으로 통합 추진</li> </ul> </li> </ul>

#### ○ 조정 요청 사유

- 「농촌공간계획법」 제정 추진중(농식품부, '22.12월 예정)
  - 광역지자체에 법정위원회(심의기구)를 의무적 구성토록 되어 있어 기능 중복 등 공약으로 부적절
  - 「충남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 전문가 자문·심의 기능으로 통합 운영

#### ■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4	2	0	18	4	2	24
2차 조사	4	2	0				



### ■ 찬성의견

- 절차 중심보다 세분화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함.
- 막연한 공약명을 구체화하기에 찬성함.

### ■ 반대의견

-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기에 TF팀을 통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예산을 투입해야함.

### ■ 기타의견

- 리브투게더 추진 시 커뮤니티마을에 고령친화식품을 제공하여 노인영양사업이 노인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어야 함.
- 리브투게더로 계획된 사업으로 인해 예산이 잘못 쓰여지는 악순환을 막아야 함.
- 도시와 농촌 간에 상생한다는데 목적이 있기에 도로 등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야 함. (현실과 동떨어지는 공약 반대)
-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서비스를 보강해야 함. (기존자체 시스템망을 잘 활용)

### ■ 최종결론

-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4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하였음.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18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2-5-10] 한국판 골드코스트 조성**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 통합

변경 전	• 보령~태안 섬 크루즈 운영
변경 후	• 한국판 골드코스트 조성

○ 조정 요청 사유

- 한국판 골드코스트 조성은 충남 서해안만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해양 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서해안에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사업
  - 해양레저·생태·치유·크루즈관광을 융복합하는 해양 네트워크 구축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사항으로 공약 통합 필요

■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2	4	0	16	6	2	24
2차 조사	2	4	0				

■ 찬성의견

- 재원을 보니 민자와 국비가 1.4조 원이고, 시도비는 3천억 원 정도밖에 안 들어 가기에 충남의 미래먹거리가 될 수 있음.
- 국가에서 지원해 줄 때 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함.



### ■ 반대의견

- 너무 방대한 사업이고 기간도 8년이 소요되기에 정책에 대한 기간의지를 유지하기가 힘들.
- 큰 그림은 좋은데 가지 수가 너무 많음.
- 시행착오로 인해 너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됨.
- 당초 공약이 더 나음.

### ■ 기타의견

- 민간자본 투입이 된다면 이익배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음.
- 민간자본 투입에 대해 우리 지자체의 수익보존계약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 최종결론

-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2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하였음.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16명이 찬성하고 6명이 반대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2-7-7] 충남형 '탄소 중립화 모델'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변경(세분화)

변경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산업진흥구역 지정, 서해안 수산어업 지원</li> </ul>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7-6)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li> <li>• (2-7-7) 충남형 '탄소 중립화 모델'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li> <li>• (2-7-8) 간척지의 첨단양식단지 조성</li> </ul>

○ 조정 요청 사유

- (세분화) “서해안 수산어업 지원”의 입체적 지원을 위해 ① 수산물 생산 분야(간척지 첨단양식단지 조성)와 ② 식품산업 육성 분야(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로 세분화 추진
- (정부정책) 정부의 글로벌 탈탄소 전환에 대응한 국정목표 ‘탄소중립 실현’에 우리도 수산식품산업의 미래성장을 위해 탄소 중립형 산업으로 전환 필요
  - ※ 새정부 국정목표 4-⑯ - 탄소중립 실현, 국정과제 23 -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
- (균형발전) 수출·R&D·창업·광역공공급식 기능이 결합된 선도적 중부권 종합 씨푸드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도모
  - ➔ 우리도 전국 3번째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대상지 선정\*을 통해 정부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한 수출전략형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역 고용 창출 확대
  - \* 他 시도 : (‘19.) 전남 목포(1,089억원, 예타면제-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2.) 부산(813억원, ‘21.11. 예타통과)



## ■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6	0	0	21	1	2	24
2차 조사	6	0	0				

## ■ 찬성의견

- 환경보존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임.
- 유통, 가공, 수산까지 함께 따라오는 사업임.
- 농촌에 대한 정책은 많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에 반해 어촌에 대한 사업은 적은 상황에서 이 사업이 수산업과 어촌의 활발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임.
- 친환경적이고,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정부정책에 호응하는 사업이고, 어촌 경제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됨.

## ■ 반대의견

- 없음

## ■ 기타의견

- 시설 주변에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함.

## ■ 최종결론

-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6명이 모두 찬성하였음.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1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2-7-8] 간척지의 첨단양식단지 조성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 변경(세분화)

변경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산업진흥구역 지정, 서해안 수산어업 지원</li> </ul>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7-6)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li> <li>• (2-7-7) 충남형 ‘탄소 중립화 모델’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li> <li>• (2-7-8) 간척지의 첨단양식단지 조성</li> </ul>

○ 조정 요청 사유

- (세분화) “서해안 수산어업 지원”의 입체적 지원을 위해 ① 수산물 생산 분야(간척지 첨단양식단지 조성)와 ② 식품산업 육성 분야(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로 세분화 추진
- (정부정책) IC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친환경 스마트 양식으로 전환 필요
  - \* 새정부 국정과제 73 -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 해양수산 스마트화 추진전략 2.0 ⇒ 수산업의 생산, 가공, 유통 혁신, 안전한 수산물 공급 체계 확립

■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5	1	0	18	4	2	24
2차 조사	5	1	0				



### ■ 찬성의견

-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고, 생선을 보다 좋은 가격으로 소비할 수 있음.
- 비어있는 간척지를 활용할 수 있음.
- 이미 석문사업단지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진행해야 함.
- 식량, 먹거리사업은 안보와 같기에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경영해야 함.
- 스마트화 되면 산재사고를 줄일 수 있고,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됨.

### ■ 반대의견

- 스마트팜으로 진행되면 고용창출에 역행하는 것이고, 혜택을 받는 수혜의 폭이 적음.

### ■ 기타의견

- 특정 기업에 특혜가 없어야 하고, 환경 보존과 수익 분배도 잘 진행되어야 함.

### ■ 최종결론

-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5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하였음.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18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 나. 2분임 (홍주)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b>[2-9-2] 고령·은퇴 농업인 정년제 도입</b>
-----------------	---------------------------------

###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명 변경, 공약 통합

변경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 정년연금제도</li> <li>• 경영이양직불제(농지 임대.매매시)시범 실시</li> </ul>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은퇴 농업인 연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0세이상 고령농 은퇴시</li> <li>· 기본연금(면적 5구간) : 3,500천원~5,500천원 차등지원</li> <li>· 면적당 : ha당(매도 4,400천원, 임대 2,400천원) 지원</li> <li>→ 은퇴농업인 이양농지를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배정</li> <li>* 최종방침 결정 전으로 지원 금액 등은 변경 가능</li> </ul> </li> </ul>

#### ○ 조정 요청 사유

- 정부의 여러 사업들과 유사하고 복잡하여 당초 공약취지와 같이 경영 이양(고령농 은퇴, 청년농 경작권 확보) 등에 유리한 정책으로 통일
  - ▷ 국민연금 지원(농식품부 / 월 최대 45,000원)
  - ▷ 건강보험료 부과시 차등 지원(농식품부)
  - ▷ 경영이양직불금(ha당 매도 3,300천원, 임대 2,500천원) 지원

### ■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2	2	1	14	10	0	24
2차 조사	4	0	1				



### ■ 찬성의견

- 농촌에 가면 혼자 계신 독거 어르신들도 많은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기본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강제성을 가지고 모두가 무조건 참여해야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찬성함.

### ■ 반대의견

- 면적별 지급금액이 다름.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지원금액에도 빈익빈 부익부 논리가 작용하여 면적에 따른 지원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음.
- 토지가 농지은행에 귀속되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자녀에게 이양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하여 조금 더 자유롭게 하는 것도 가능하게 해야 함.

### ■ 기타의견

- 지원금액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작아서 지원금액이 너무 작다고 하는 의견이 많음. 지원금액을 더 늘렸으면 함.
- 시군에서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시군과 협의하면서 진행해야함.

### ■ 최종결론

-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4명이 찬성하였음.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14명이 찬성하고 10명이 반대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3-11-3] 보육료 합리적 조정**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명 변경

변경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시설 아침·점심반 시간 연장 및 보육료 지원 단계적 상향</li> </ul>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료 합리적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부미지원시설(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100% 지원</li> <li>② 정부지원시설(어린이집) 유아반 교사 인건비 100% 지원</li> </ul> </li> </ul>

○ 조정 요청 사유

- 어린이집 유형 간 지원 기준 수치화
  - 민간·가정어린이집(정부미지원) 만3~5세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 지원보육료 간 차액 발생 금액 지원
  - '23년 기준 표준보육비용은 인상예정으로 무상보육 추진을 위해 새로운 표준보육비용 전액 지원 필요(차액보육료)
- ①정부미지원시설 표준보육비용 100%지원, ②정부지원시설 인건비 100% 지원

■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4	1	0	20	4	0	24
2차 조사	5	0	0				



### ■ 찬성의견

-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어린이집 교사가 되었는데도,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고, 시군별로 교사 지원금이 차이가 나기도 함.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 인건비를 100% 지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국공립, 사립 어린이집에 대해 동일하게 표준보육비용을 100% 지원하는 것 자체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차별적 대우를 끊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원에서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예산이 모두 확보된 상황에서 의회 승인만 남아 있기에 꼭 해야 함.

### ■ 반대의견

- 없음

### ■ 기타의견

-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였으면 함.
- 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한 후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함.
-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어린이집 교사가 된 경우도 있고, 몇 개월 속성으로 교사 자격을 갖춘 경우도 있는데, 어린이집 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근무한 이력에 대한 연차별 가산제도가 필요함.

### ■ 최종결론

-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5명이 모두 찬성하였음.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0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3-11-4] 워킹맘을 위한 초등돌봄체계 확립**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명 변경

변경 전	• 종합돌봄시스템 맘투게더 구축
변경 후	• 워킹맘을 위한 초등돌봄체계 확립

○ 조정 요청 사유

- 종합돌봄시스템 구축은 초등돌봄체계 확립을 위한 세부사항임
- 공약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종합돌봄시스템 구축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인 워킹맘을 위한 초등돌봄체계 확립으로 공약명 변경 조정 요청

■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2	1	2	21	3	0	24
2차 조사	4	1	0				

■ 찬성의견

- 돌봄 관련 운영 시스템이 개선되어 돌봄교사에 대한 고용안정이 이루어져야 함. 학습부진아를 위한 체험교사가 있는데, 좋은 스펙을 가진 우수한 인력임에도 1년에 10개월만 근무하고 1년 단위로 재고용하여 교육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돌봄교사는 이를 더 개선해야 함.



### ■ 반대의견

- 예산이 적어서 실제 실행이 되어도 워킹맘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음.

### ■ 기타의견

- 돌봄교실이 지역별로 잘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는데 아이들 특성에 맞게 나누어서 골고루 잘 이루어져야 함.
- 돌봄교사를 외부에서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데, 학교 교사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라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운영하여 돌봄교실이 아이들이 그냥 머물다가 가는 곳이 아니라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어야 함.

### ■ 최종결론

-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4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하였음.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1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 다. 3분임 (충남어벤저스)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b>[3-10-3]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강화</b>
-----------------	----------------------------------

####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 변경(세분화)

변경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돌봄 강화</li> </ul>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증 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강화</li> </ul>

#### ○ 조정 요청 사유

- 장애인 돌봄 대상을 세분화 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보호 강화 필요
  - 장애인활동지원대상 이외에 보호자의 긴급 상황 발생시,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사각지대 보완
- 현재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된 5개 시군(천안,아산,서산,당진,홍성)에서만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중
  - 공약 세분화 및 구체화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미설치 시군(10개소) 100% 설치 완료 목표 설정 → 돌봄 사각지대 장애인 보호 강화

#### ■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5	0	0	22	2	0	24
2차 조사	5	0	0				



## ■ 찬성의견

- 사각지대 장애인 보호 강화라는 취지에 맞게 세분화되어 더 폭넓은 혜택을 많은 장애인들이 받게 하기 위해 변경되는 것이 타당함.
- 장애인 보호자면 가족일 텐데 가족들이 장애인 돌봄을 일상에서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케어하겠지만 이 가족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로 인한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정책으로 생각됨.
-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돌볼 때 뜻하지 않은 상황이 많이 일어날 텐데, 이런 돌봄 서비스로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음.
- 심의 내용 자체가 포괄적인데서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음. 돌봄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정책임.
- 장애인, 중증장애인 모두 중요함.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집안이 울스툼 되고 집안의 모든 에너지가 거기에 집중되는데, 이를 돌보고 보완하는 정책이므로 찬성함.

## ■ 반대의견

- 없음

## ■ 기타의견

- 작년에 예산의 60%가 소진되었다고 하는데, 중증장애인에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는 것은 맞지만 전체 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중증장애인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필요함.

## ■ 최종결론

-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5명이 모두 찬성하였음.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2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3-10-4]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보험료 지원**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 변경(세분화)

변경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돌봄 강화</li> </ul>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보험료 지원</li> </ul>

○ 조정 요청 사유

- 장애인돌봄 강화를 실행을 위한 세부사업계획 제시 필요
  -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
  - 전동 보장구 사용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동 편의 제고

■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5	0	0	22	2	0	24
2차 조사	5	0	0				

■ 찬성의견

- 장애인은 생활의 편의를 위해 보장구를 사용하는데 보장구 사용 미숙이나 도로사정의 열악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함. 장애인 본인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타인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여 찬성함.
- 장애인의 이동권 등 보장에 부합하는 안건으로 찬성함.



## ■ 반대의견

- 없음.

## ■ 기타의견

-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혜택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도록 홍보를 진행해야 함. (장애인들이 진단을 받아 보호장구를 신청 할 수 있는 병의원을 통한 홍보)
- 읍면, 부락 이장 등을 통해 각 지역의 장애인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여 진행해야 함.
- 공약 수립 시 구체적인 실태, 사례 조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부족함. 예산편성 등에 현실이 잘 반영되길 기대함.
- 보장구 이용을 못 움직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많이 불합리한 것임. 정말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인은 조금 낮은 등급의 생활 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일 수 있으니 조금 낮은 등급의 장애인도 혜택을 보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함.
- 장애인 전동보장구에 사고예방을 위한 LED 비상경고판 부착 지원 사업도 진행해야 함.

## ■ 최종결론

-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5명이 모두 찬성하였음.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2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3-10-5] 충남도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 변경(세분화)

변경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돌봄 강화</li> </ul>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도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설치</li> </ul>

○ 조정 요청 사유

- 장애인 돌봄 대상을 세분화 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보호 강화 필요
- 현재 피해장애인쉼터 1개소 운영중(공주시 소재)이나 생활공간 협소하여 남녀구분, 생활교사 사무공간 등 부족하여 추가 설치 필요  
→ 학대피해장애인의 긴급돌봄을 위한 거주공간 설치 및 운영지원등 공약세분화 및 구체화 필요

■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5	0	0	22	2	0	24
2차 조사	5	0	0				

■ 찬성의견

- 도내 학대피해장애인 쉼터가 1개소 운영중이라고 하는데, 남녀 공동 사용 등 현황이 너무 취약한 상황임. 더 미루지 말고 빠르게 추진해야할 사안임.



- 찬반의 의미보다 당초공약을 구체화, 세분화 시킨 내용임. 조정요청 사유인 장애인 돌봄 대상을 세분화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적극 동의함.
- 가족이 365일 장애인을 돌보기 어렵고 지치다보니 학대가 일어날 수 있음.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는 당연히 필요하고, 현재 운영 중인 1개소 외에 1개소를 추가하는 것 뿐 아니라 권역별로 확대해야 함.

### ■ 반대의견

- 없음.

### ■ 기타의견

- 예산을 잘 확보해서 “힘센 충남”처럼 빠르게 진행하길 바람.
- 현실을 반영했을 때 1개소 추가 개소로는 부족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특히 정서적, 성적 학대도 있을 텐데 낯선 사람들과 만나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힘들 수 있으니, 성별이 분리된 셰어하우스 형태로 만들어 생활교사들의 분리된 생활도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배려가 필요함.
- 쉼터를 매입하는 것만이 답은 아님. 임대형식으로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니 남·녀 성별 분리를 시급히 진행하고 심리치료,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함.

### ■ 최종결론

-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5명이 모두 찬성하였음.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2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3-10-6]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운영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 변경(세분화)

변경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돌봄 강화</li> </ul>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운영</li> </ul>

○ 조정 요청 사유

- 장애인돌봄 강화를 실행을 위한 세부사업계획 제시 필요
  -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역장애인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 구축 필요
  - 장애인 건강증진사업 네트워크 구축, 검진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종사자 교육등을 지원하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운영

■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5	0	0	23	1	0	24
2차 조사	5	0	0				

■ 찬성의견

- 필요성과 취지에 적극 공감함. 충남에서 선도하는 사업이 되길 기원함.

■ 반대의견

- 없음.



## ■ 기타의견

- 충남이 인구가 제법 많은데 홍성의료원에 1개소를 운영한다는 것이 아쉬움. 예산을 더 확보해서 권역별로 나누어 확대 운영하게 되길 기대함.
- 장애인과 농업분야의 정책은 충남에서 특별히 힘을 실어 강력히 추진해야할 사업임.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이니 각별히 신경써서 추진하길 바람.
-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자녀들은 신체적 장애 유전이 있을 수 있음. 청각장애인 부모의 자녀는 언어발달 지연에 대한 우려도 있음. 이러한 아이들에 대한 언어발달 조기검사와 촉진, 지원도 센터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함. 충남에 센터가 없다가 처음 만들어지는 만큼 세심하게 돌보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함.
- 장애인들의 이동에 제약이 많은 것을 고려해 권역을 나누고 빠른 시일 내에 센터를 추가 설치하길 바람.
- 시군구 의료원에도 작은 규모라도 센터들이 많이 생겨야 함.
- 보건의료센터와 권역별간의 이동지원서비스가 적용된다면 장애인들 접근이 유리해질 것임.

## ■ 최종결론

-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5명이 모두 찬성하였음.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3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라. 4분임 (공약 지켜보고있다)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선거공보] 유네스코 지정 갯벌 국립공원
-----------------	------------------------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 폐기

변경 전	• 유네스코 지정 갯벌 국립공원
변경 후	• 폐기

○ 조정 요청 사유

- “유네스코 지정 갯벌 국립공원”공약에 대한 전문가 및 지역, 관계부처의 서천갯벌 국립공원 지정 반대의사에 따른 공약 폐기 필요
  - (전문가)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자연환경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가치를 인정받은 사항으로, 하위 등급인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필요
  - (주민·서천군)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행위규제 강화와 지역발전 저해, 어업활동 지장 등이 우려됨에 따라 지정 반대
  - (해양수산부) 어업활동 규제 등으로 민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반대의사 표시

■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1	1	0	18	4	2	24
2차 조사	2	0	0				



### ■ 찬성의견

- 임기 내로 한정하여 보았을 때 해당지역 주민의 반대를 묵시할 수 없고, 국립공원 지정 시 규제로 인한 재산권(어업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립공원 지정은 어렵겠다고 판단함.

### ■ 반대의견

- 없음.

### ■ 기타의견

- 해당지역 주민 의견 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의 의견 반영이 필요함
-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 국립공원 지정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을 진행하여 추후에 국립공원 지정을 다시 시도하길 바람.

### ■ 최종결론

-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2명이 모두 찬성하였음.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18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3-10-10]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지원**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사업내용 변경

변경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직활동 촉진 지원금(연 1,000명, 1인 5만원) 지원</li> <li>• 새일센터(10개→15개) 확대 운영 *광역 제외</li> </ul>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충남형 직업교육훈련과정 개발 보급 등 지원강화</li> <li>•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미설치 시군에 대한 취업지원사업 확대</li> </ul>

○ 조정 요청 사유

• 구직활동 촉진 지원금

-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구직활동촉진지원금으로 1인 연1회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공약 취지인 경력단절여성등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에 미치는 영향 미미 판단
- 도에서 기추진중인 타부서 사업(자격증 취득비용 지원사업\*, 충남 면접비 지원사업\*\*)과 내용 유사·중복

\* 자격증 취득경비 1인당 최대 50,000원

\*\* 1인당 40,000원 지급, 연간 1인당 최대 3회

• 새일센터(10개→15개) 확대 운영

- 센터 미설치 5개\* 시군은 지역 특성상 여성 농업종사자가 다수로 경력단절 여성 및 수요 기업체 부족으로 지속적인 성과가 예상되지 않으며 사업의 시급성 부족

\* 계룡, 금산, 청양, 예산, 태안

- 무조건적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운영보다는 시군의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



⇨ 따라서 당초 공약의 취지를 살리면서 개선된 공약으로 대체 추진 필요

○ 변경공약 세부 내용

- 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충남형 직업교육훈련과정\* 개발·보급 등 지원 강화

\* 지역의 여건에 맞는 훈련과정, 고부가 가치 직종(IT, 디자인 등) - 일자리 전문 기관 협조

➔ 고부가 가치 직종의 직업교육훈련 과정 개발 보급으로 경력단절여성 양질의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음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미설치 시군(5)에 대한 취업지원사업\* 확대

\* 지역대학, 직업교육훈련기관 등과 연계한 직업훈련교육 및 취업지원(4개 '22) → 5개 시군('23~))

➔ 시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에 맞는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지원 등이 효과적

■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2	0	0	21	1	2	24
2차 조사	2	0	0				

■ 찬성의견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는 것은 사회 진출을 다시 원하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지원이 될 수 있음.

■ 반대의견

- 없음.



■ 기타의견

- 현장 실무진들의 의견대로 수요와 니즈가 없기 때문에 거점센터를 만들지 않겠다(새일센터 미설치)는 조정안은 수용하나, 미설치 지역의 '취업지원사업을 확대'라는 막연한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최종결론

-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2명이 모두 찬성하였음.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1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4-16-1] **e스포츠 메카 조성**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 통합

변경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 e스포츠 게임단 창단</li> <li>• e스포츠 메카조성(전국체전, 상설경기장 등)</li> <li>• 글로벌 e스포츠대회 개최</li> </ul>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스포츠 메카조성</li> </ul>

○ 조정 요청 사유

- 당초 포괄적이었던 3가지 공약(e스포츠 메카 조성, e스포츠 게임단 창단, 글로벌 e스포츠 대회)을 'e스포츠 메카 조성'공약으로 통합하여 추진함이 효율적임
- 'e스포츠 게임단 창단' 공약은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성이 낮아 프로 게임단 스폰서십 등으로 대체 추진함이 적절함
  - ※ e스포츠 게임단 창단에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지자체 차원에서 e스포츠 게임단 창단 사례 없음

■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0	2	0	7	17	0	24
2차 조사	0	2	0				

■ 찬성의견

- 없음.

■ 반대의견

-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설득력이 부족하고, 230억 원이 넘는 예산소요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해 보임. 면밀한 검토와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조사 분석이 필요함.
- 타지자체에서 겪고 있는 e스포츠센터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차별성이 약함.

■ 기타의견

- 없음.

■ 최종결론

-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2명이 모두 반대하였음.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7명이 찬성하고 17명이 반대하여 조정안이 최종 부결(불승인)되었음.



## 마. 5분임 (처음이에요!)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1-2-3]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벨트 조성

###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 통합

변경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소산업진흥원 유치</li> <li>• 블루수소 클러스터 조성</li> <li>• 블루수소 클러스터·수소산업진흥원 신설로 탄소중립 지원</li> <li>• 해양수소드론 허브구축</li> <li>• 석탄(CO<sub>2</sub>) → 석탄+암모니아(NH<sub>3</sub>)·천연액화가스(LNG) → 수소(H)에너지로 전환</li> <li>• 블루수소 클러스터·수소산업진흥원 신설로 탄소중립 지원</li> </ul>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벨트 조성</li> </ul>

#### ○ 조정 요청 사유

- 수소에너지 관련 공약만 6개 공약으로 혼재되어 있어 조정필요성 제기
  - ① 수소에너지 융복합산업벨트 조성
  - ② 블루수소클러스터 조성
  - ③ 수소산업진흥원 유치
  - ④ 해양수소드론 허브구축
  - ⑤ 석탄(CO<sub>2</sub>) → 석탄+암모니아(NH<sub>3</sub>)·천연액화가스(LNG) → 수소(H)에너지로 전환
  - ⑥ 블루수소 클러스터·수소산업진흥원 신설로 탄소중립 지원
- 수소에너지 관련 공약은 현재 경제성 부족 사유로 민간주도사업 미흡
  - 정부 및 공공기관 주도의 사업화가 필요한 상황
- 개별 사업에 대한 정부사업 추진보다 산업벨트 구축사업으로 일괄 추진이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 일괄 이행에 유리하다 판단되어 공약 통합

■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3	2	1	19	5	0	0
2차 조사	4	2	0				

■ 찬성의견

- 변경 후의 내용에 다 들어가 있다면 문구가 문제였던 것이고,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공약을 폐지하라는 안건의 회의가 아니라면 근본적으로 잘 되었다, 잘 못되었다를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음.
- 환경 문제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함. 변경된 공약에서도 기존 공약에서 폐기하는 것은 없기에 찬성함.
- 환경이 좋아지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 진행되었을 경우 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함.

■ 반대의견

-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사업이 아닌 국가가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임. 실현 가능성이 없음. 민자 4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데, 기업이 이익을 회수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공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을 보완했지만, 기존에 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대해 세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음.

■ 기타의견

- 민자로 하게 된다면 비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한정된 예산으로 충족될 수 없을 것임.



- 수소라는 공약 그 자체만으로는 앞으로 가야하는 방향이기에 찬성하지만, 세부적으로 민자로 가는 것이 역량이나 비용적인 부분에서 가능한지 여부를 생각해야 함. 차라리 국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 최종결론

-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4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하였음.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19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역점] 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방안**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일반사업 전환(역점)

변경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탄소배출 단계적 감축</li> <li>석탄(CO2) → 석탄+암모니아(NH3)·천연액화가스(LNG) → 수소(H)에너지로 전환</li> <li>석탄화력발전소 14기(기존 2기 포함) 2032년까지 단계별 폐지</li> </ul>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방안</li> <li>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li> <li>정의로운 전환 기금 확충</li> <li>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세수 감소 보전</li> </ul>

○ 조정 요청 사유

- 당초 공약은 화력발전소 폐지와 에너지 전환의 방법적 측면에 초점
  - 석탄 → 수소 에너지 전환, 석탄화력발전소 14기 단계적 폐지
- 탄소중립에 따른 에너지 전환 및 석탄화력발전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도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 강구 필요
  - 구체적 목표 설정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 및 후속 대안 마련

■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6	0	0	23	1	0	24
2차 조사	6	0	0				



### ■ 찬성의견

- 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 생각함.
- 화력발전소를 폐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라 생각함.
- 기존 공약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라서 찬성함.
- 공약 자체가 허술했던 부분을 좀 더 연구해서 세밀하게 필요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찬성함.

### ■ 반대의견

- 없음.

### ■ 기타의견

- 기존에 화력발전소에서 일하시던 분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철저하게 생각해야 함.
- 기금과 같은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공약의 큰 틀만을 제시했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함.
- 화력발전소 폐지와 '정의로운'이라는 의미 사이의 관계를 잘 모르겠음. '정의로운'이라는 표현을 세밀하게, 알기 쉽고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약의 세부 내용을 풀어서 제시해야 함.

### ■ 최종결론

-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6명이 모두 찬성하였음.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3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역점] 칠갑산 관광자원 개발 및 콘텐츠 개발**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일반사업 전환(역점)

변경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칠갑산 관광자원 개발 및 콘텐츠 개발</li> </ul>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칠갑산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li> </ul>

○ 조정 요청 사유

- 칠갑산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지정 추진과 연계하여 자연·문화가치 보존과 기존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동시에 추진
  - 국가예산 투입으로 보다 전문적인 공원관리를 통한 자연자원의 체계적보전·관리
- 고품격 탐방서비스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칠갑산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내외국인 관광객 수요 증가 및 연계사업 추진 활성화
  - 공원 내 명품마을 조성, 주민가이드 등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

■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5	1	0	22	1	1	24
2차 조사	6	0	0				



## ■ 찬성의견

- 현재 도립공원 상태에서는 칠갑산을 개발시키는데 있어서 기타 부서들 간의 협의 과정 등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음.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생각함.
- 도립공원이 가진 한계성이 있기에, 국립공원으로의 지정은 지역주민 및 도에 있어서 좋은 방향이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함.
- 도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도를 발전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함.
- 칠갑산 주변의 장곡사, 알프스 마을 등 다른 자원들과 연결되면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음.

## ■ 반대의견

- 국립공원으로 승격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 ■ 기타의견

- 현재 칠갑산만 본다면 지역이 좁기 때문에 신청 시 국립공원으로의 승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듦. 세밀하게 잘 준비해야 함.
- 관광객 유치는 이제 단순히 관광지의 크기로 경쟁하지 않음. 관광지 안의 콘텐츠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경쟁력있게 준비해야 함.

## ■ 최종결론

-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6명이 모두 찬성하였음.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2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역점] 소상공인·자영업 신용보증지원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일반사업 전환

변경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상공인·자영업 신용보증지원</li> </ul>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실패자에 대한 재도약 기회 제공</li> <li>충남도 내 고용친화적 기업 지원</li> </ul>

○ 조정 요청 사유

- 매년 시행하던 기존사업이며,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경영해소를 위한 '23년 한시적 확대 보증지원으로서 역점과제로 조정 추진
  - (기존) 매년 일정규모\*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및 1.7% 이차지원
    - \* '19년 1,300억원, '20년 1,400억원, '21년 1,750억원, '22년 2,700억원
  - (확대) 3,000억원 보증규모 및 3.3% 이차지원(사업실패자, 청년창업 등)

■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5	1	0	19	4	1	24
2차 조사	5	1	0				

■ 찬성의견

- 당초의 공약보다는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함.



## ■ 반대의견

- 진짜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지원되는 것이 없음. 고용 친화적 기업이라는 것도 결국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에만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함.

## ■ 기타의견

- 소상공인들 지원은 찬성하지만 본 내용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찬성과 반대를 판단하기 어려움.
-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세밀하게 잘 살펴야 함.
- 변경 내용에 사업하는 소상공인 말고도 증빙되지 않는 어려운 도민들도 발굴해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함.

## ■ 최종결론

-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5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하였음.
- 전체 회의 투표 결과, 19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제4장

**도민배심원 활동 후기**





## 제4장 도민배심원 활동 후기

### ■ 분임별 소감나누기

- 2, 3차 회의를 마치고 진행된 ‘소감나누기’에서 제시된 의견임.

### 2분임 (홍주)

**의견1** 이런 자리가 처음인데, 관계 공무원이 여러가지를 잘 설명해줘서 이해가 잘되었습니다. 매니페스토본부에서도 설명 잘해주시고 진행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차 회의에서 찬반 투표할 때 많은 도움이 되도록 더욱 경청하고 겸손하게 참석하겠습니다.

**의견2** 공약이라고 하는 게 충남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행정에서 구체화하여 도민들을 위해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감개무량합니다. 잘 모르는 분야이지만, 경륜과 경험을 가진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선배님들의 경험과 청년들의 열정이 융합되면 충남도도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뜻 깊은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3** 안건들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은데, 여러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따로 만나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4**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공무원 설명도 좋았습니다.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의견5** 제가 모르는 것도 알게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농민들의 아픔과 기쁨에 대해 잘 몰랐는데, 정책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해가 충분히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견6** 보육, 돌봄, 농어민 문제 등 우리들이 평소에는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 와서 논의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가슴에 담고 되뇌이도록 하겠습니다.

### 3분임 (충남어벤저스)

**의견1** 이미 다 시행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충격 받았고 잘 시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2** 복지 분야를 정치권에서 화두로 다루고 있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대장애인 쉼터가 충격이었습니다. 성별 관련없이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 충격이었습니다. 충청남도의 그늘진 부분에 좀 광명을 비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데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력충원이나 이런 부분을 의견 개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3차 회의 때 그런 의견들을 많이 써서 도지사에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3**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안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고 하니까.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4** 같은 의견이고 가까운 가족 중에 장애인이 없어서 관심 밖의 일이고 잘 몰랐는데 이번에 참석을 하면서 사람일 모르는 것이고 관심을 갖고 응원할 부분 지지할 부분은 지지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견5**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자기 일처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의견6**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문구를 보면 세부적으로 분리를 시킨 것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약을 진행할 때 기초적인 실태조사를 했으면 제대로 되었을 텐데 안되어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공약을 세울 때 그런 것을 신경써서 하는 것이 다른 공약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2022년 6월에 준비위원회 분과 정책자문회의가 있었으면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준비를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견7** 전체적인 회의는 충청남도 무언가 하려는 느낌은 있습니다. 나도 나이들고 그러 보니 신체 움직이는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인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충청남도가 약한 것 같아 치매현상 등을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많이 있으나 안 따온 것이 많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가 치매라던지 노인, 장애인 복지에서 한 발 앞서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미진한 부분이 많으니 더 공부해야할 것입니다.

**의견8** 분임에 장애인 관련 안건만 있어 모두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도민의 시선으로 공약을 살펴보고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질의할 수 있었던 시간이 좋았습니다. 담당자 설명이 상세했고 배심원이 공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구체적 데이터, 통계, 기본정보들이 자료집에 안내되었으면 조금 더 판단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관심주제를 다룰 것으로 기대했던 배심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견9** 매번 충남도, 군 등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도지사, 실과장 등으로 구성해 정기적으로 진행하면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정해진 답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매니페스토 회의는 다양한 연령대, 지역, 성비 모두 고려해 배심원을 무작위 선발한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편하게 정책 자체에 대해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였어서 이런 제도를 만든 사람에게 커피를 듬뿍 사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견10** 무작위 선발된 배심원들이다보니 담당자들이 진정성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는 진행해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의 정책 반영 창구가 보존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도정에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의견11** 서산에서 배심원제에 참여해 폐기하려는 공약을 원상회복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세부 실천계획이 올라갈 때 공약과 부합되지 않거나 실망스러운 계획들이 올라가기도 하는데 회의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합니다. 중간중간 점검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지길 바랍니다.

**의견12** 도청사를 구경한다는 것이 설렘이었습니다. 도서관 구경도 하고 충남도청에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커피도 마셔보는 등 참여 과정이 행복하고 의미 있었습니다. 3분임에 배정된 장애인 관련 안건은 크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견13** 장애인복지 안건이라 생소하고 와닿지 않고 관심이 없어서 거부감도 있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살펴보니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이런 계기로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란 것을 확인하는 계기. 더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 보다 지금 마음이 감사하고 편안합니다.

**의견14** 매니페스토 관계자들도 현장에서 참여자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회의를 활력있게 진행해줘서 말하고자하는 바를 잘 말할 수 있었습니다.



## 4분임 (공약 지켜보고있다)

의견1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왔는데 큰 도움이 못된 것 같습니다.

의견2 2차 회의 전에 관련 부서에 모두 전화를 했습니다. 공약실행에 의지가 있어 꼭 지켜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을 떠맡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대응모습을 보여 안타까웠습니다. 도시사의 공약 의지처럼 실무진 공무원들도 똑같이 적극성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의견3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라 관련 공무원분들이 귀담아 들어주면 좋겠고, 다음 회의 전까지도 자료를 좀 더 받아 자세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의견4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없지만, 현장조사도 나가보고,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합일점을 만드는 경험이 좋았습니다.

의견5 (새일센터 관련) 자료 요청 시(전화연결), 턱없이 부족한 자료제공으로 의사결정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재차 요청하니, 귀찮아하는 태도와 충분한 설명 없는 수동적인 대응에 당황했습니다.

의견6 이러한 활동들이 단순 요식행위가 아닌, 실제적으로 도민의 현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활동지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5분임 (처음이에요!)

의견1 열심히 잘 들었고, 충남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의견2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견3** 공약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의견4** 좋았습니다.

**의견5** 매니페스토운동이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견6** 공약 안건 과제에 따라서 시간 안배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토의 시간을 과제에 맞도록 시간 분배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한국의 지방자치는 권력기관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주권재민의 원칙에 소홀하였다. 주민자치의 성공은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한 단위의 구성이다. 이를 통해 자유롭게 다양한 의사를 표현하고 토의와 심의를 거쳐 시민들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결국 주권재민의 실현은 공적 영역(public realm) 확보와 절차적 정당성, 민주적 책임성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그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의 해결 방안과 미래비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는 지역마다 고유한 과제들이 의제화되고, 서로 다른 판단과 견해가 동등한 무게로 다뤄져야 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디지털사회로의 전환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팬데믹 등이 뒤엉킨 대전환기에서 치러졌다.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대책과 정책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소중한 과정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국정안정론과 정부견제론에 빠지면서 지방이슈와 자질검증,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는데 소홀할 수 밖에 없었다. 선거과정에서 지방이슈와 정책에 대한 정보가 유권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고, 다양한 의견이 서로 교환되며 공통적인 의견을 도출해 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면 보완적 절차의 수행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매니페스토본부가 제안하였던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실천계획서 작성과 공개, 그리고 배심원단 구성을 통한 공약 조정 적정여부의 심의와 공약실천계획 평가는 복잡하고 파편화된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협력하는 '공동창조자(cocreator)로서 참여하는 통로를 마련하자는 제안이었다. 현대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인지되는 사회문제의 해결과 공약실천 및 조정을 위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고유 권한을 보장하자는 강력한 권고였다.



주민들로부터 민선8기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철학과 가치는 명확하나, 유권자에게 제시한 코로나19 대책과 디지털사회로의 전환 및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대응책이 충분히 토론되지 못했다.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 간 불균형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과정도 아쉬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구비례에 의해 선발된 배심원단 운영은 인수위나 비전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을 따져 선거공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위헌적 위법적 주장을 제어하면서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절차성을 확보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제시했던 공약과 정책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객관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라 볼 수 있다. 그 진화의 일면적 증거는 '선거 공약이 더 이상 깨뜨려도 괜찮은 약속처럼 취급되는 일은 없을 정도로 관리가 되어져가고 있는가'이다.

배심원단 운영은 충청남도민과 지자체가 직접 교감하여 민선8기 공약실천의 기초와 방향을 설정함은 물론, 공약이행 과정에서 신뢰행정의 모델을 발굴·확산시킴으로써 시민소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건강한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

지방자치는 공공성과 지역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가치(Value), 그리고 철학(Philosophy)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평범한 시민이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지방행정에 참여하는 배심원제는 그 실현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효과적이다. 또한 배심원단으로 참여한 주민들의 지역 및 행정에 대한 관심 제고와 타인에 대한 배려 및 다양성 존중 등 교육적 측면으로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 부록





## 1. 1차 회의 교육자료

1차 회의 교육자료

#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과 충청남도 도민배심원

2022. 09. 27.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홍승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기획팀장

매니페스토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구체적 약속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책임성을 담아 문서로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매니페스토운동은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라는 경고인 동시에  
아래로부터의 따뜻한 약속과 용기 있는 실천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성숙한 민주시민운동입니다.



Contents

- Ⅰ 도민배심원 추진 개요
- Ⅱ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Ⅲ 도민배심원 운영 절차





① 도민배심원 추진개요

## 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제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① 도민배심원 추진개요

## 선거공약

유권자는 선거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에게 권력이 아닌 권한을 위임  
선거 공약은 유권자가 갑(甲)이고 후보자가 을(乙)인 고용계약서



1 도민배심원 추진개요

## 전환의 시대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변화, 팬데믹이 뒤영킨 시대, 과거와 다른 새로운 정책과 공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디지털 시대

인구구조 변화

팬데믹



Manifesto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6

1 도민배심원 추진개요

## 지난 지방선거, 지역의 공약은?



Manifesto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7



① 도민배심원 추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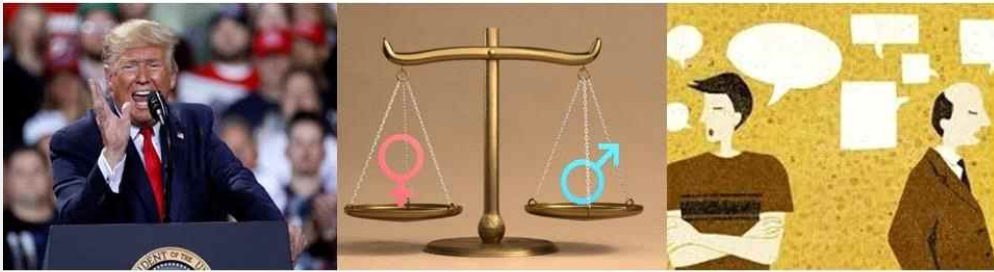
## 3무(無) 선거

디지털사회로의 전환, '정초(定礎)선거' 성격이 강했으나 선거 프레임이 국정 안정론과 정권 견제론으로 흐르며 지방이슈·자질검증·정책이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이념갈등

젠더갈등

세대갈등



① 도민배심원 추진개요

## 공약실천계획

직접 주민들이 참여해 공약실천 계획을 점검하고 조정안을 심의하는 도민배심원 운영을 제안하였습니다.

부서별 공약사항 점검  
실천전략 투자계획  
재정분석 우선순위  
신대후보 공약 수용  
**STEP 2: 위원회 구성**

인구비례 무작위 추첨  
조정안 심의, 승인  
권고사안 제시  
활동 보고서 작성  
**STEP 4: 배심원 운영**

보고서 수용여부 공시  
공약실천계획서 최종확정  
공약실천계획서 주민공개  
**STEP 6: 실천계획서 확정**

**STEP 1: 공약정보수집**  
선관위 게시 5대 공약  
예비후보자 홍보물  
후보자 선거공약서  
후보자 선거공보

**STEP 3: 조정안건 도출**  
기 추진 및 소관 외  
중복사업, 갈등우려  
재정부담, 법적 문제

**STEP 5: 보고서 검토**  
조정안 승인 확인  
권고사안 실국 검토  
보고서 수용여부 확정



① 도민배심원 추진개요

- 회의일정: 2022년 9월 27일(화), 10월 18일(화), 11월 1일(화)
- 대 상: 충청남도 거주 만 18세 이상 주민
- 선발인원: 도민배심원 50명
- 구성방법: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주최주관: 충청남도·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심의범위: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②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위기, 기회** 불편한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명한 정보제공을 통해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토니블레어(Tony Blair) 매니페스토

국민과의 계약으로써 목표치와 로드맵, 재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II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숙의, 심의

투명행정을 요구하여 공약정보를 모두 공개토록 하고, 고용주로서 어떤 판단이 지역을 위한 것인지에 합의해 갑니다.



II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추첨민주주의

미국은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제를, 캐나다는 선거법 개정을, 덴마크는 정책방향을 결정합니다.

미국 사법배심원제  
(Jury system)

브리티시 콜롬비아 시민의회  
(British Columbia Citizens' Assembly)

덴마크 시민과학회의  
(Danish Board of Technology)



II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공론화 위원회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양한의견 수렴과 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신고리원전  
공론화 위원회

대입제도  
공론화 위원회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 위원회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공론제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관리하게 한다.  
국민의견 수렴을 촉진하는 역할에 있다.



II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숙의민주주의

- ①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 ② 의사결정의 질 향상 (여론조사 vs 공론조사)
- ③ 이웃, 지역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
- ④ 사적이익과 공적이익 간의 균형과 조화
- ⑤ 협력적 거버넌스





II 속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대한민국 듣기평가 : 무엇이 문제일까요?



II 속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건전한 소통의 기반, 사실(F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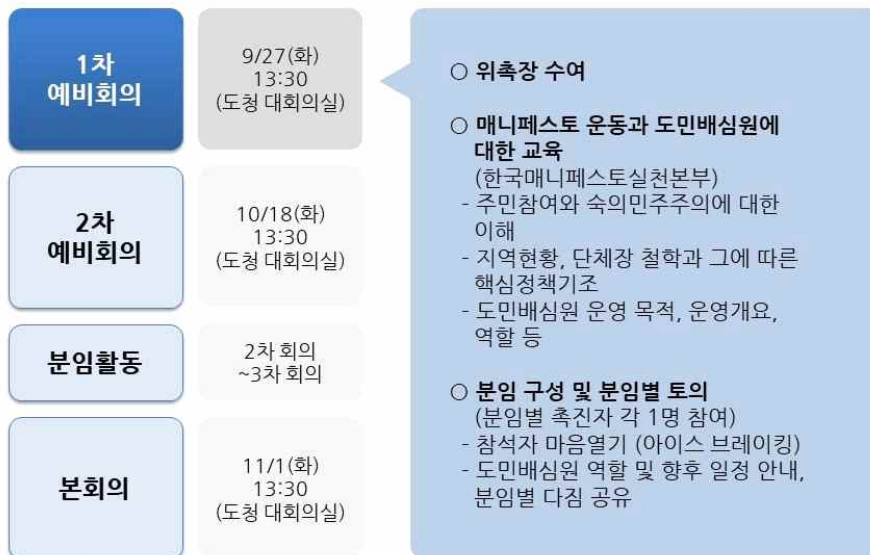


II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도민배심원 운영의 목적과 의의



III 도민배심원 운영 절차





III 도민배심원 운영 절차

1차 예비회의	9/27(화) 13:30 (도청 대회의실)
2차 예비회의	10/18(화) 13:30 (도청 대회의실)
분임활동	2차 회의 ~3차 회의
본회의	11/1(화) 13:30 (도청 대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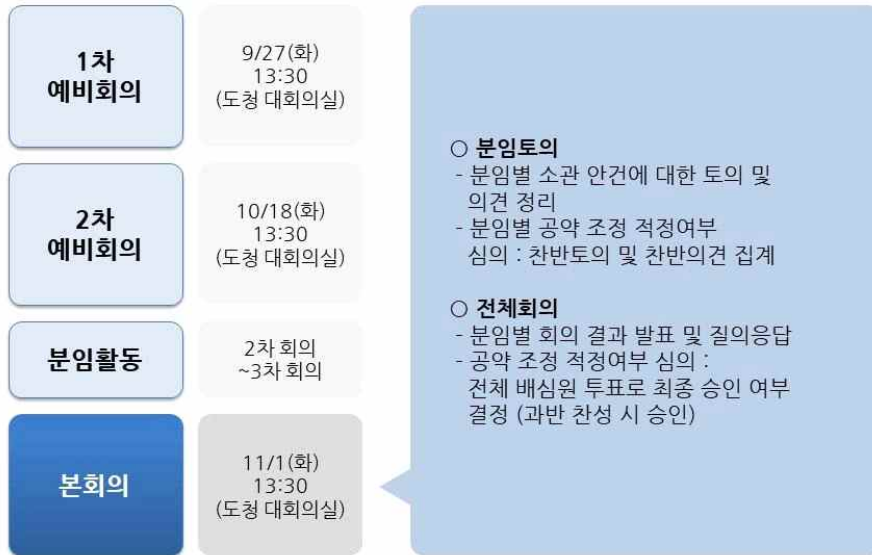
○ 심의 안건 설명회  
(주관부서 ⇄ 도민배심원)  
- 분임별로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배심원 질의에 대해 답변  
- 설명 종료 후 배심원 자유 토의

III 도민배심원 운영 절차

1차 예비회의	9/27(화) 13:30 (도청 대회의실)
2차 예비회의	10/18(화) 13:30 (도청 대회의실)
분임활동	2차 회의 ~3차 회의
본회의	11/1(화) 13:30 (도청 대회의실)

○ 주관 부서 담당자와의 심층면담  
○ 현장조사  
※ 필요시 자율적으로 진행

III 도민배심원 운영 절차



감사합니다



## 2. 3차 회의 교육자료

3차 (본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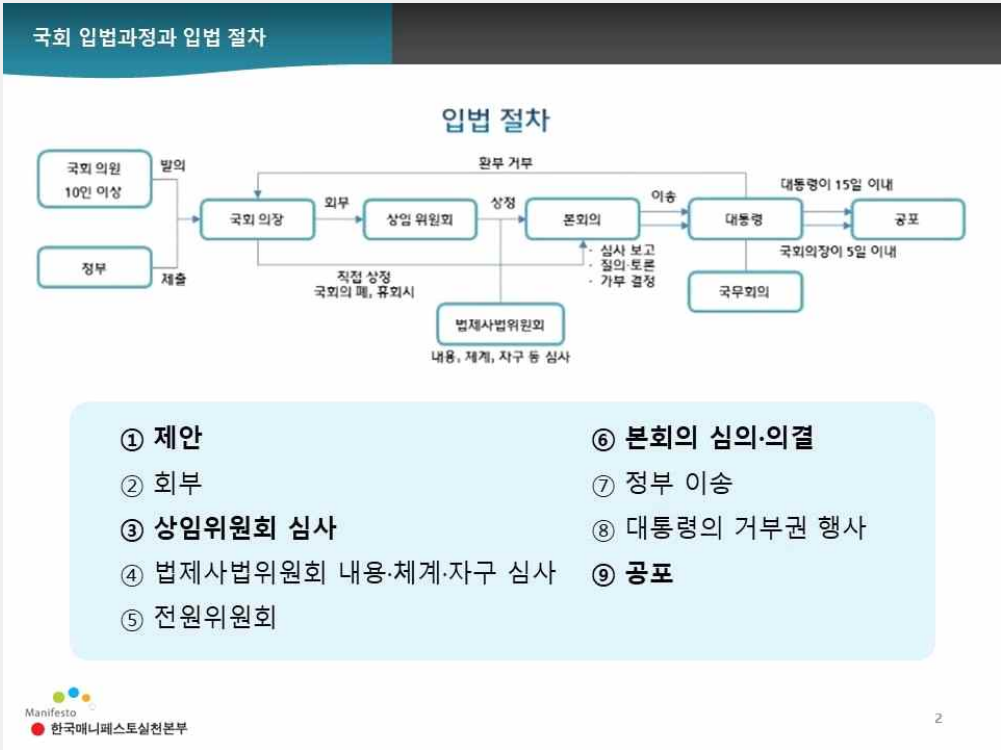
### 충청남도 도민배심원 본회의 진행 설명

2022. 11. 1.

Manifesto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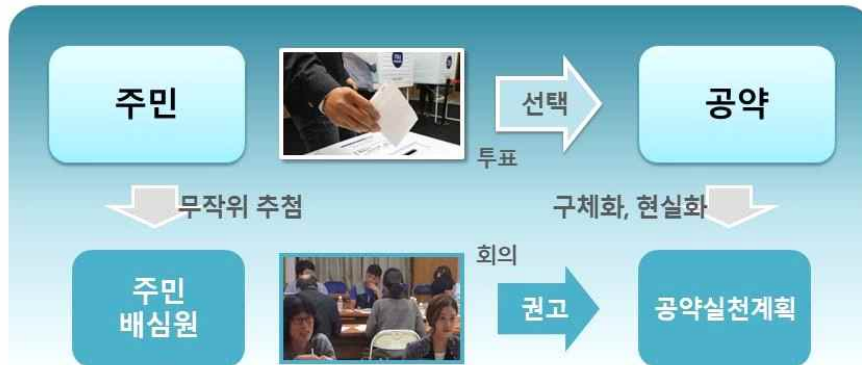








## 도민배심원의 권한 범위와 역할



전체 주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직 공직자 선거, 공약 선택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권고안 제시

## 본회의, 배심원단의 태도 (자세)

- 경청**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 존중** 다른 사람이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존중해 줍니다
- 신뢰** 활동과정에서 들은 중요한 비밀은 다른 이들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 본회의, 배심원단의 태도 (마음가짐)

우리는 주민을 대표해 공약실천계획을 점검하고 조정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배심원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충청남도를 위한 매우 중요한 권고사안입니다.  
선입견을 내려 놓고 자신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공공성도 함께 고려해 주십시오.



### 본회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공성과 현재여건을 고려하여 공약 조정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해 주십시오.  
엄정한 재판관의 입장에서 충청남도 전체의 공공성에 기반해 판단해 주십시오.





분임토의 후 분임별 토의 결과를 전체회의에서 보고  
분임별 투표 결과를 두고 배심원단 전체 투표로 최종 승인여부 결정

① 분임토의 : 분임별 안건 토의 (120분)

-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② 전체회의 및 투표 (60분)

분임별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각 10분)

- 분임별 분임장 토의결과 보고 및 질의응답 (토의결과 보고 7분, 질의응답 3분)
- 조정 심의 안건 중 분임 미승인 안건에 대해 공약사업담당자 소명 기회 부여 (1분)

전체 도민배심원 투표

- 조정 심의 안건은 분임 안건에 대한 전체 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참석자 과반 찬성)

감사합니다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2022 충청남도 도민배심원 회의 운영 결과 보고서**

발행일 2022년 11월

발행처 충청남도

제 작 충청남도

집 필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